

송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朝鮮時代 燈器에 관한 研究
: 燈臺와 燭臺를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김 수 경

朝鮮時代 燈器에 관한 研究

- 燈臺와 燭臺를 중심으로

송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김 수 경

인 준 서

김수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 전통의 등기는 전등이 사용되기 전까지 조상들의 밤을 밝혀 주었던 도구로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등기를 미술공예의 범주에 넣기 보다는 민속공예나 생활용구인 민구(民具)로만 생각하였기에 그동안 미술사에서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축소된 의미로써만 인식되어 오던 생활용구인 등기를 통하여 그 시대의 생활관습, 문화 등이 등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살펴보고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한다.

등기의 변천과정은 모닥불에서 이동에 편리한 횃불로 발전하였고 등잔불과 촛불로 이어졌다. 그 중 기름을 이용한 등잔은 등기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용된 방식이었는데, 이는 원료인 기름을 식물의 씨앗이나 동물의 굳기름 등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초는 양봉을 하기 전까지는 밀납을 자연에서만 얻거나 수입에 의존하였기에 그 원료가 매우 희소하여 예·의식이나 왕실, 상류계층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시장경제의 발달로 생활이 나아지면서 일반 서민층에서도 초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배경으로 삼국시대는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형성 발전되는 시기로 권위적인 귀족문화의 성격을 띤 등기와 국교였던 불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성격의 등기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수용된 불교가 통일신라시대에 전성기를 이루면서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도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 시대의 국제적 성격을 나타낸 당의 영향을 받아 정교하고 화려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에도 연화문 등이 나타나며 화려한 형태의 촛대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왕공귀족과 승려를 중심으로

한 귀족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통일신라의 문화를 계승하고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연등회, 팔관회 등이 열리면서 제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촛대의 기본적인 형태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에 따라 고려시대까지의 귀족적이며 화려한 문화는 배제를 하고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형태의 휴대용 등기인 초롱 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형성과정을 거친 등기는 등잔과 등잔대, 촛대, 좌등, 제등으로 구별되고 등잔대는 등경, 등가와 같이 등잔대 위에 등잔을 올려 놓는 형태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등과 등잔대와 등잔이 하나로 되어있는 소형등잔으로 분류된다. 촛대는 의식용 촛대와 일상생활용 촛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제등은 등롱과 초롱으로, 초롱은 지초롱, 사초롱, 조족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등잔대와 촛대를 중심으로하여 등기를 형태별, 재료별로 분류하고 이에 나타난 문양 등을 통하여 이 시대의 주된 사상적 배경인 유교와 연관된 실용적인 면과 더불어 우리 민족 저변에 자리잡은 민간신앙과 함께 불교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기의 사용에 있어 상류계층과 서민층의 신분 계급에 따른 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분석해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등기의 일반적 고찰.....	5
1. 등잔대와 등유.....	7
2. 촛대와 초	10
3. 좌등.....	14
4. 제등.....	15
III. 조선 후기 이전의 등기의 역사	19
1.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19
2. 고려시대.....	25
3. 조선 전기.....	27
IV. 조선 후기 등기의 유형과 형식.....	30
1. 등기의 유형	31
1) 등잔대	31
① 등경	31

②등가	33
③주등	37
④소형 등잔	38
2)촛대	40
①의식용 촛대.....	40
②일상생활용 촛대.....	43
2. 형식과 기법	48
1)재료와 기법.....	48
2)문양.....	51
3. 등기에 나타난 비례관계.....	57
V. 결론.....	63

참고문헌

도판목록

도판

ABSTRACT

부록

I. 서론

1. 연구목적

인류가 불을 사용한 이래 전등의 발명으로 더 이상의 재래식 조명기구가 필요치 않을 때까지 전통의 등기(燈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등기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하여 불을 켜는 도구로 기름불이나 촛불을 이용하도록 만든 기구이다. 처음에는 단지 어둠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지닌 공예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예품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생활미술로서 민족성이나 생활관습,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등기가 미술사에서 등한시 되어 왔는데 이는 등기를 미술공예의 범주에 넣기 보다는 민속공예 내지 단순한 민구(民具) 또는 생활용구로 보았기 때문이다.

등기의 역사는 크게 고려시대 이전과 조선시대로 구분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초[燭] 원료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유등(油燈)을 사용하였고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는 유등과 납초[蠟燭]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불교의 영향으로 제등이 발달하였으며 등기에서도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문화가 다른 미술공예와 마찬가지로 생활용구인 등기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역불승유 정책을 펼친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금욕적인 윤리관이 예술에 반영되어 절제된 가운데서 조화를 찾아내었다.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성향과는 달리 이 시기 공예는 대중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모하

였다. 조선시대 공예의 자연 그대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은 민속공예품인 등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등기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유물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주제로는 등기를 현대식 가구 디자인이나 현대식 조명에 접목시킨 것과 등기의 조형성을 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¹⁾

본 연구의 범위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만 그동안 미술사에서 간과되어 왔던 등기의 역사적 고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각지에 산재해 있는 등기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여 미술사적 맥락을 부여하고, 시대적 배경과 미적 감각이 등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조선시대의 등잔대와 촛대를 중심으로 등기의 형태와 문양을 통한 형식 분석을 통하여 양식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의 등기 연구에 일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등기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삼국시대부터 전기가 유입되기 이전인 조선시대 말까지의 전통 등기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등기의 종류와 형태를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1) 등기에 주목하여 쓴 학위논문으로는

- 김삼대자, 「이조시대 등촉기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68
- 이규향, 「이조후기 목등기의 조형성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 김영호, 「조선조 금속촛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7
- 백인자, 「이조시대 등기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79
- 구방희, 「조선조 등기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이태숙, 「조선조 등기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서동욱, 「금속제 등 개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박미경, 「조선조 등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승은, 「우리나라 전통 등기구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신철승, 「조선조 등기 형태를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실내조명용 등기 중 등잔대와 촛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고려시대까지의 등기는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유물의 수 또한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장경제의 발달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서민층까지 등기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재료나 형태 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조선시대 가운데 특히 후기에 연구를 집중시킨 까닭은 첫째, 생활용구인 등기는 대물림 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사용하다 망가지면 버리고 새것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관계로 연대가 올라간 등기가 많지 않다. 둘째 조선시대의 잦은 외침과 6.25전쟁의 피해로 많은 등기가 손실되어 조선 후기 이전의 등기는 비교 고찰하기에 숫자가 너무 적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등기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조명용 등기 중 등잔대와 촛대를 주로 다루었으며 실외 조명용인 제등이나 실내 조명용 등기이지만 일부 상류계층에서만 사용하던 좌등, 또한 불교 사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인 직접 조명용이 아닌 석등은 제외하였다. 이는 현존 유물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집약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본 논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등기를 크게 등잔대, 촛대, 좌등, 제등으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사용된 연소물인 등유와 초에 관해 연구한다.
- (2)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등기를 살펴 본다.
- (3) 조선 후기의 등기 중 등잔대와 촛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여기에 나타난 문양과 다른 민속 공예품과의 관계와 상류계층과 서민층의 등기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함께 연구한다.

연구방법은 각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등기를 추적하여 유물을 실측, 분

석하고 구조와 형태, 문양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등기와 관련한 문헌 자료와 풍속도 등에 나타난 등기의 실제 사용 모습 등을 토대로 되도록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주력하였다. 등기는 유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등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 국립중앙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 21곳과 대학 박물관 19곳, 개인 소장품을 포함하여 1800여점중 대표적인 것 100여 점을 표본으로 실측하였으며, 실측 할 수 없는 것은 박물관 등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II. 등기의 일반적 고찰

인류가 자연에서 우연히 얻은 불씨를 보관하고 마찰열을 통해 새로운 불씨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생활에 지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불은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와 맹수로부터의 보호 외에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구실을 하였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중앙 부분에서 보여지는 화덕의 흔적은 취사, 난방 이외에 조명의 역할까지 담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등기의 형태는 처음에는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목 등을 이용하여 모닥불을 사용하였고 후에 이동에 편리한 거화(炬火)²⁾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인지의 발달로 주거방식의 변화와 동·식물의 기름, 납초, 석유 등으로 연소물이 발전됨에 따라 등기의 형태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등기는 단순한 조명 수단 이외에 아름다운 외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경제, 종교, 생활관습 등 시대상에 따라 변모를 거듭한다.

유등양식(油燈樣式)으로는 참기름, 들기름, 피마자기름, 면실유, 소나무기름, 오구나무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소, 돼지, 생선 등의 동물성 기름을 종지형 그릇에 담고 심지를 이용하여 불을 켜는 등잔(燈臺)과 여기에 받침대인 등잔대(燈臺臺)를 사용한 방식이 등기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말 석유가 수입되면서 강한 인화성 때문에 심지꽃이 뚜껑이 달린 호형(壺形)등잔이 나오기까지 등잔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³⁾

2) 햇불을 말하며 실외 조명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추(萩 싸리나무)의 밑등을 묶어 쓰는 축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韓國의 古燈器』, 한국전력주식회사, 1968, 3쪽

3) “韓國에 石油類가 最初로 輸入된 것은 大體로 1876年(高宗 13年) 日本과 通商條約이

등잔의 형태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종지형의 등잔과 고배각(高杯脚) 형태의 등잔대가 만들어졌고, 고려시대에는 제등이 종교적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등기의 형태가 이 시대에 기반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실용적인 등잔대가 만들어지고 널리 보급되면서 등잔대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초에 대해 고찰해 보면 삼국시대의 경우 초 [燭]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된 바 없어 초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신라기의 촛대와 안압지에서 출토된 초 가위가 있어 신라에서는 초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⁴⁾(삽도1) 고려시대 말경



(삽도1) 금동촉협, 통일신라

국내에서 초가 생산되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기에 햇불과 유등 양식의 등기 사용이 더 지배적이었다. 초는 원료가 귀하고 제작 기법도 어려워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만 사용하였고, 일반 서민층은 관혼상제(冠婚喪祭)나 신불의식(神佛儀式) 등에만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왕실이나 상류계층의 수요에 따라 촛대는 금속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의장이 화려하고 조형성이 뛰어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기 이후 다양한 초가 개발되고 생산량도 많아지면서 서민층에서도 일반 조명용으로 초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하면서 소박한 형태의 촛대가 나타났다.

批准되고 貿易이 開始된 時機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梅泉野錄卷一의 上「石油의 始用」條에는... 韓國에서 石油가 처음으로 使用된 것은 1880年(高宗 17年)으로 記述하고 있다.”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앞의 책, 12쪽

4) 가연성 고체인 밀납이나 기름을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그 중심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히게 만든 등화용 연소물을 말하며 재료는 밀납(蜜蠟), 수지(獸脂), 목납(木蠟), 충백납(蟲白蠟), 경납(鯨蠟), 파라핀납, 식물성기름을 이용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3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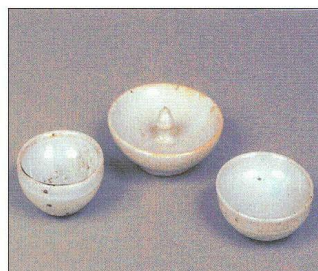
한편 국내에 전기가 보급된 경로는 1887년 구정월 이후 경복궁내에 백축광의 아크등이 점화된 것을 시초로⁵⁾ 덕수궁, 창덕궁에 25kw 직류발전기를 설치하여 점등하였으며 1901년에는 한성전기주식회사가 일반 민가에 영업용 전등을 보급하였다.⁶⁾ 전기가 보급된 후에도 전통의 등기와 석유를 이용한 서양식의 램프가 계속 사용되었지만 전력공급이 원활해지자 오랫동안 사용하던 등기는 순식간에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현재는 특별한 의식에서만 일부 사용하는 의례용의 의미로 남았다.

1. 등잔대와 등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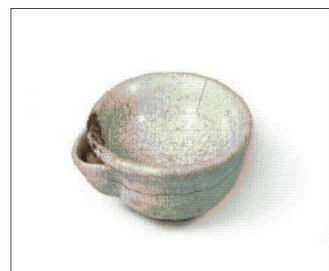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등기 중 등잔대를 보통 등잔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등잔이란 종지형의 그릇으로 그 안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넣어 불을 켜는 등기를 지칭한다. (삽도2-4) 이 등기에는 동·식물의 기름이 이용되었고 심지는 주로 솜[綿]을 꼬거나 삼[麻布]을 끈과 같이 만들어 썼으며, 일제시대 농촌의 석유등에 한지(韓紙)를 말아서 심지로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지도 심지의 재료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⁷⁾ 등잔의 재료로는 토기, 청자, 백자, 철제, 유제, 옥석 등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신라시대의 토기 등잔이나 무령왕능



(삽도2) 토제 등잔



(삽도3) 백자 등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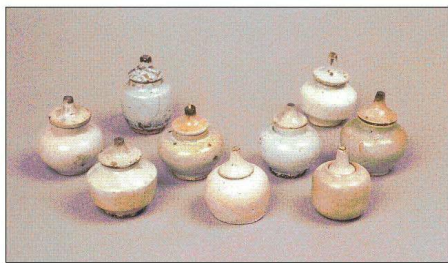
(삽도4) 백자 등잔

5)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앞의 책,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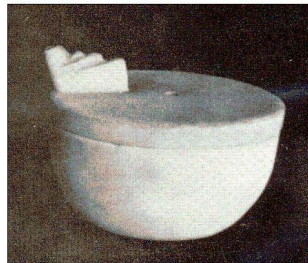
6)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사대계 III권』, 동아출판사, 1978, 578쪽

7) 김삼대자, 「이조시대 등축기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68, 20쪽

에서 출토된 백자 등잔에서부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전기가 유입된 이후 산간 벽지에서 근래까지 사용 되었던 등잔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 다소의 변화라면 호형(壺形)과 탕기형(湯器形)(삽도5,6) 등잔이 석유가 수입된 이후 강한 인화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하여 불꽃과 기름을 차단하기 위한 뚜껑이 달린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등화의 조건을 등기의 구조보다는 양질의 기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삽도5) 호형 등잔



(삽도6) 탕기형 등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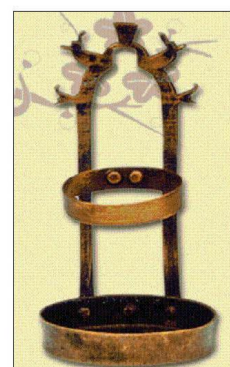
등잔대에 등잔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등기는 등경(燈檠), 등가(燈架), 주등(廚燈)으로 구분된다. 우선 등경은 등잔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등경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등가는 고정된 받침대 위에 등잔을 올려놓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등은 벽에 걸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한 곳은 주로 부엌이었다.(삽도7,8,9) 또한 등잔대와 등잔이 하나로 만들어진 소형등잔은 주로 서안에 올려놓고 사용하였으며 불에 타지 않는 도자기, 석제, 옹기 등으로 제작되었다.



(삽도7)목제 등경



(삽도8)목제 등가



(삽도9)주등

등잔에 사용된 등유로는 우지유(牛脂油), 돈지유(豚脂油), 어유(魚油), 경유(鯨油) 등의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였는데 식물성 기름을 더 양질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식물성기름은 주로 식물의 씨앗에서 채취를 하였는데 참기름[胡麻油], 들기름[荏子油], 피마자기름[蓴麻油], 면실유(綿實油), 콩기름[大豆油], 오동나무기름[桐油], 오구나무기름[柏皮油], 소나무기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동물성기름과는 달리 정제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호마유와 초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백피유를 상품으로 꼽았는데,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호마유는 조선시대에도 귀한 것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만 사용을 하였다.

국역 『增補山林經濟』 가운데 등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아 있다.

참기름 凡麻油 取油經久 則無香 燃燈亦滅 須時時攪用 可也 (참기름은 기름을 짜고 나서 오래 두면 향기가 없어지고 등불을 피워도 꺼진다 반드시 수시로 짜서 쓰는 것이 좋다)

들기름 取油燃燈 則無暈 油清且多出 (등불을 켜면 무리가 생기지 않으며 기름이 맑고 또 많이 나온다)

피마자기름 此油雖 燃燈於婦人紡績之時 而終不宜於讀書 必損目 (이 기름은 비록 부인들이 길쌈할 때 불을 밝히기는 하지만 독서하는 데에는 알맞지 않다. 반드시 눈을 상하게 한다)

머구나무씨기름 此油燈用甚好 然但不可讀書 恐損目 (이 기름은 등불로 쓰기에 아주 좋지만 독서하지는 못한다. 눈이 상할까 염려된다)⁸⁾

『增補山林經濟』 외에도 『산림경제』 잡방편에는 등촉 만드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전한다.

향유(香油) 1근에 동유(桐油) 3냥을 넣으면 기름이 덜 닳고 쥐가 소모하는 것을 방지한다. 소금을 조금 등잔 속에 넣어두면 기름을 생감(省減) 할 수

8) 이강자 외 13인 공역, 『국역 增補山林經濟』, 신광출판사, 2003, 388-391쪽

있으며 생강으로 등잔가를 문질러 주면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소목(蘇木)으로 등심(燈心)을 달여 벌에 말렸다가 불을 켜면 불뚱이 없다. 입춘전 1일이나 납형전 1일에 등잔 심지를 잠시 동안 물에 담가 벌에 말려 간직했다가 여름에 불을 켜면 모기가 근접을 못한다. 등잔 심지 돈을 막대는 2월 초 2일이나 청명일 해뜨기 전에 말하지 말고 냉이 대궁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등잔 돌울대를 만들면 모든 벌레가 영영 등잔속에 들어가지 않는다.⁹⁾ 이와 같이 등기 자체의 구조를 언급한 것보다 등유를 만들거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보아 등기의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등유의 질을 높여 양질의 빛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령왕능에서 출토된 종지형의 백자 등잔이나 전기가 가설되지 않았던 산간 벽지에서 근래까지 사용하던 등잔의 모습이 1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¹⁰⁾

2. 촛대[燭臺]와 초[燭]

촛대는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초의 원료가 귀하고 만드는 방법도 쉽지 않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촛대는 크게 의식용 촛대와 일상생활용 촛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의식용 촛대의 형태는 복발형(覆鉢形)의 받침대 위에 연주형(連珠形), 장고형(長鼓形), 죽절형(竹節形) 모양의 간주(竿柱)가 세워지고 그 위에 초꽃이가 달린 받침이 있으며 대개 쌍으로 사용되었다.(삽도10)

일상생활용 촛대는 복발형, 명형(皿形), 팔각형, 거북형 등의 받침대에 죽절형, 연주형, 장고형 모양의 간주가 세워지고 그 위에 초꽃이가 달린 받침이 있으며 나비형, 파초형, 박쥐형, 원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방풍선(防風扇 또는 火扇)과 심지를 자르거나 불을 끄기 위한 불집계를 매달기

9) 민족문화추진회 편, 『산림경제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233쪽

10) 이종석, 「한국등기의 변천」, 『공간』, 1971, 11/12, 43-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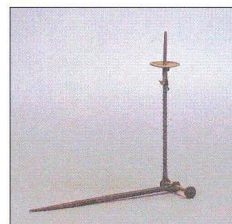
도 하였다.(삽도11) 이 외에 집안에서 간단한 용무를 볼 때 사용하는 수초와 다목적용 촛대의 경우 야외에서 사용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밑부분에 고정용 지지대를 만든 것도 있다.(삽도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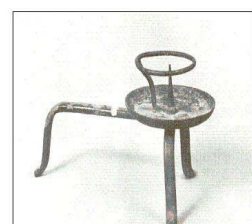
(삽도10) 황동제 촛대



(삽도11) 유제 촛대



(삽도12) 다목적
촛대



(삽도13) 수초

촛대와 함께 사용되었던 초의 시작은 수렵시대에 식물성 기름보다는 저질이지만 동물의 기름덩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초의 시초로 암시한다.¹¹⁾ 초는 상등품인 납초를 비롯해 저질의 지초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졌는데, 납(蠟)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초의 대표적인 원료로 봉밀이나 백랍층, 고래기름 등에서 취하였다. 양봉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산중에 있는 천연적인 봉밀을 채취하였으므로 원료가 매우 귀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고려시대까지만하여도 원료가 희소하였던 납초는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만 일부 사용이 가능하였고 대부분은 햇불의 이용에 만족해야 했으나 조선시대는 내치와 외교의 성공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산업경제가 발달되면서 중기 이후에 각종 초가 개발되고 후기에 이르러 일반 서민층까지 초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초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가운데 먼저 그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초(刺燭)는 갈대를 베로 묶어 납을 바른 것으로 연기와 그을음이 심하였다.

홍대초[紅大燭]는 오승포(오승포: 다섯새의 거친 베)에 붉은물을 들인 납을 발

11) 이종석, 앞의 글, 43쪽

라 길이 1척여로 잘라 만들었다. 황밀초[黃蜜燭]는 봉밀을 물에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밀랍을 판 위에 놓고 굴대로 굴러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 굴대를 빼고 심지를 끼웠다. 밀초[蜜燭]는 밀납을 녹여 대통 속에 넣어 굳힌 것을 말한다. 백납초[白蠟燭]는 황밀을 고아 장지에 걸러 짜내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용초[龍燭]는 백납을 주홍 안료로 물들여 용을 양각한 것으로 궁중에서 사용하였다. 화초[華燭]는 백랍을 물들여 모란을 장식하고 심지는 종이를 붉게 물들여 만든 궁중의 의식용 초이다.¹²⁾

내점납초[耐點蠟燭]는 황납(黃蠟), 송지(松脂), 괴화(槐花) 각 1근, 부석(浮石) 4냥을 한곳에 녹여 등심에 바르면 주야를 켜도 1촌이 닳는다.

풍전초[風前燭]는 건칠(乾漆), 짙은 해금사(海金沙), 초석(硝石), 유황 각 1냥, 검은콩가루, 역청, 황납을 각 2냥에 먼저 역청과 황납을 녹여 즙을 만든 다음, 나머지를 넣고 반죽하여 구포(舊佈)를 불 위에 펴놓고 촛가락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만리초[萬里燭]는 황화(黃花), 지정(地丁), 조각화(阜角花), 송화(松花), 괴화(槐花) 각 2전, 밀(蜜) 1근과 함께 달여 자주 끓여서 걸러내고 백급(白箴) 2전을 넣고 붉은 무리가 생길 때를 기다려 불을 물리면 즉시 응결이 된다. 불을 켜고 만리를 갈 수 있다 하여 만리초라 한다.

인광노(引光奴 성냥개비) 광솔은 쪼개어 작은 조각을 만들되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유황을 녹여 그 끝에 발라두었다가 밤의 급한 일이 있을때에 불을 붙이면 즉시 붙게 된다. 어떤 때는 화피(樺皮)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 급히 타서 쉽게 꺼지기 때문에 오래 타는 광솔만 못하다.¹³⁾

성납초[聖蠟燭]는 황밀, 송지, 다진 괴각자(槐角子: 느티나무씨) 각 한근과 속포석 8냥, 백교향(白膠香: 단풍나무의 진) 2냥을 함께 끓여 마디가 작은 7,8치의 대통에 부어 굳힌 것으로 심지는 박지 않고 초 끝에만 꽃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22권, 328쪽

13)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223-224쪽

불을 켜도록 하였으며, 초 한 자루로 10-20일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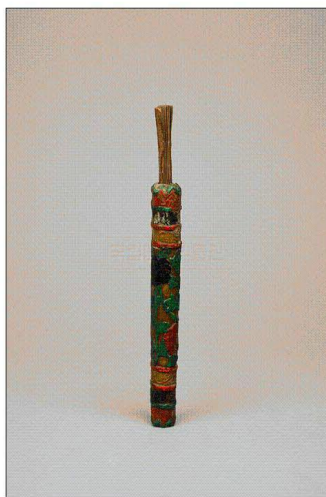
지초[脂燭]는 소나 돼지의 지방을 회즙(灰汁) 속에 넣고 끓여 찌꺼기를 버리기를 3,4회 반복하여 깨끗한 기름을 걸러 내어 반으로 쪼갠 대통에 넣어 끈으로 묶어 굳힌 것으로, 심지는 면포를 사용하였다. 지초는 잘 녹는 특성이 있으며 공주 지방에서 만든 우지초는 특히 품질이 좋았는데, 그 모양은 찌꺼기를 버리는 요령에 있다.

잡초[雜燭]는 포황(蒲黃: 부들의 꽃가루)과 관유(灌油: 회초리나무 기름)를 섞어 만든 초와 황벽말(黃蘗末: 황경피나무 가루)과 참기름 찌꺼기를 섞어 만든 초 및 쌀뜨물과 기름 찌꺼기로 만든 초를 말한다.(삼도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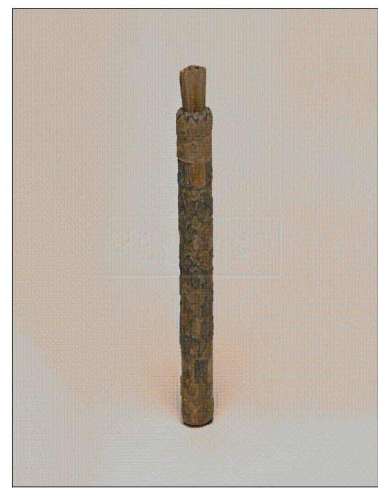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초의 종류를 살펴 보았다. 초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용해된 원료에 심지를 담갔다 빼내어 식히는 동작을 반복하여 굵게 만드는 담금법, 심지위에 용해된 원료를 붓고 반듯한 표면위에서 굴려 만드는 굴림법, 용기나 대통에 원료를 부어 만드는 주축법이 있다.¹⁴⁾



(삼도14) 화초



(삼도15) 화초



(삼도16) 밀초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22권, 328쪽

3. 좌등(座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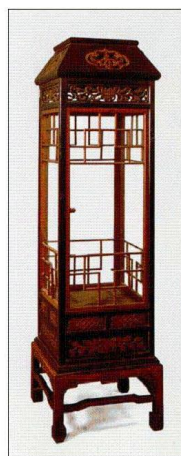
좌등은 장등(長燈)과 서등(書燈)으로 구분하는데, 장등은 왕실이나 상류 계층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등잔이나 촛대와 같이 부분적인 곳을 직접 비추기 보다는 실내 전체를 밝혀주는 간접 조명 역할을 맡았다. 장등은 장방형의 형태로 외부의 틀은 목재로 만들었으며 사방에 창문이 있고 창문 안쪽에는 비단[紗]이나 종이[紙]를 발랐으며 유리를 끼운 것도 있다. 창문은 창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창살의 무늬는 한옥의 창호에 나타나는 만자문(卍字紋), 아자문(亞字紋)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정면의 창문만 열리게 되어 있으며 외여단이, 쌍여단이의 형태로 되어 있고 둥근 모양의 문고리가 달려 있다. 내부에는 금속 촛대나 등잔을 넣게 되어 있고 촛농이나 기름이 떨어질 때 안전을 위하여 바닥은 목재에 철판을 씌운 사각판으로 꺼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밑에는 서랍이 있어 인광노(引光奴:성냥)나 초를 넣도록 하였고 마제형(馬蹄形)의 네 다리가 달린 화려한 가구 양식의 등이다. 장등은 서민층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고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 관가의 청헌 등에 사용 되었으므로 소형은 볼 수 없으며, 높이가 70-100cm 내외로 등잔대나 촛대보다 키가 크며 이는 실내를 좀더 넓게 비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삽도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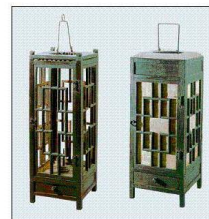
(삽도17)좌등



(삽도18)좌등



(삽도19)좌등



(삽도20)좌등



(삽도21)좌등



(삽도22)좌등

반면, 서등(書燈)은 얇은 목판으로 나무꺾꽂이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서 6-7촌 넓이로 검은칠을 하고 등잔 하나만을 용납할 수 있게 하되, 높이는 8촌으로 하여 꼭대기에는 등근 구멍을 직경 3촌이 되도록 뚫어 놓는다. 그리고 앞에는 창을 내어 걸어 놓으면 등잔 빛이 바로 책 위에 비치게 되어 밝기가 보통 등의 배가 된다.¹⁵⁾ 글을 읽을 때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서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내부에 철펠로 만든 간단한 등경을 고정시켜 설치한 것도 있으며 그 크기는 적게는 25cm에서 크게는 70cm로 다양하다.

4. 제등(提燈)

제등은 휴대용 실외 조명기구로 목제, 철제, 유제, 죽제 등으로 만든 골격 위에 종이, 비단, 양각(羊角), 유리를 붙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리거나 새기었다. 제등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팔각형 등이 있으며 제등 안에 등잔을 이용하여 불을 밝히는 등롱(燈籠)과 초를 이용한 초롱[燭籠]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초롱은 표면에 종이를 바른 지초롱[紙燭籠]과 비단을 바른 사초롱[紗燭籠]으로 구분되며, 조족등(照足燈), 조촉(照燭)도 제등의 일종이다. 제등의 손잡이는 끈을 꼬아 만들거나, 죽절 마디를 이용한 것이 있으며, 나무로 원형이나 팔각형 등의 형태를 만들어 연화문 등을 조각하고 내부에 공간을 두어 여분의 초를 넣을 수 있게 만든 것도 볼 수 있다.(삽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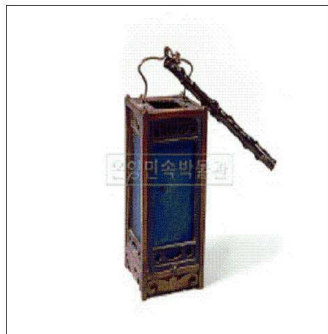


(삽도23) 제등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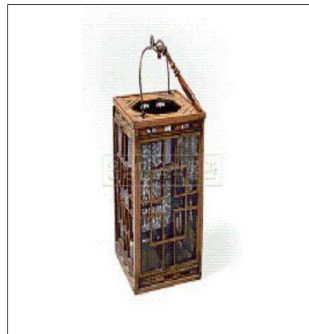
초롱은 실외조명 이외에도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예·의식(禮·儀式)이나 왕의 행행시(幸行時) 주로 사용하였으며, 민가의 결혼이나 제사에는 2-4개의 초롱을 이용하였는데 사용계층의

15)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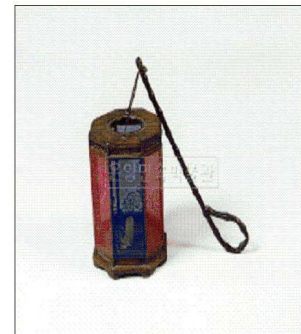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그 수가 제한되었다고 한다.¹⁶⁾ 목제 초롱의 몸통 부분에 비단이나 종이를 바르는 것이 좌등과 비슷하나 휴대하여 사용하므로 좌등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게 만들어졌다. 사초롱은 지초롱에 비해 크기가 크며 접을 수 있게 만들었으며 혼인 때 청사초롱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이 사초롱을 말한다. 제등 즉 초롱은 휴대용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각계 각층 사용자의 신분이나 재력에 따라 그 규모와 치장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삽도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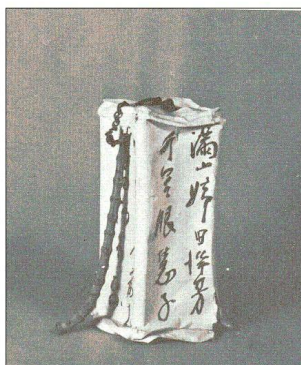
(삽도24) 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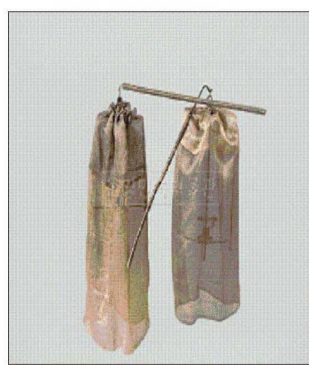
(삽도25) 제등



(삽도26) 제등



(삽도27) 지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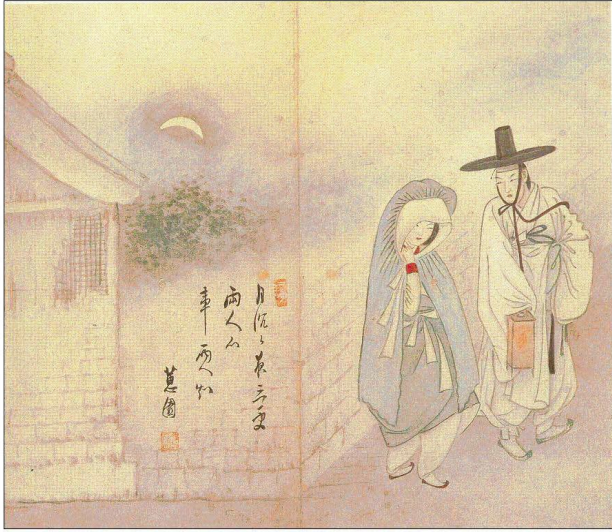


(삽도28) 청사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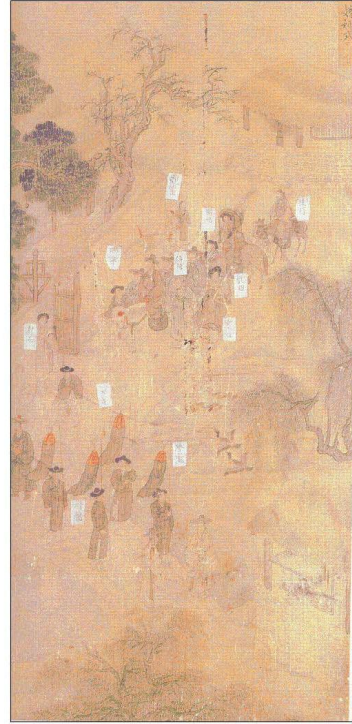


(삽도29) 청사초롱

16) 김삼대자, 앞의 논문, 58쪽



(삽도30) <월하정인>



(삽도31) <모당평생도>
흔레식

조족등(照足燈)은 순라꾼이 야경을 돌때 사용한 것으로 상대의 발 밑을 비춘다 하여 조족등이라 하고, 박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박등, 야경 돌 때 사용하여 도적등(盜賊燈)이라고도 불려졌다. 조족등의 골격은 철제나 목제로 만들고 외부에 두꺼운 유지를 바르고 길상어문(吉祥語紋)¹⁷⁾, 팔괘문(八卦紋)¹⁸⁾, 박쥐문¹⁹⁾ 등을 그려 넣었다. 내부에는 철제의 초꽃이가 회전 할

17) “길상사상은 세계와 인생의 운행을 비롯한 현상계의 길흉화복(吉凶禍福)과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신령이나 오행(五行)의 운수, 천지의 기운과 같은 초월적인 자연물들을 길경지물(吉慶之物)로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인생의 소망과 욕구를 나타내고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길상어문의 종류에는 富, 貴, 壽, 福, 康, 寧, 囍 등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4권, 535쪽

18) “팔괘는 중국 전설 시대의 복희(伏羲)라는 임금이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있는 모형을 보고 계시를 얻어 위로 천문(天文)을 보고 아래로 지리(地理)를 살피고 중간으로 는 만물의 각기 마땅한 바를 관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팔괘는 온갖 천지 만물의 현상과 형태의 기본이 되는 여덟 가지를 나타낸 일종의 기하학적 상징 부호라고 할 수 있다.... 팔괘, 64괘에는 음양소장(陰陽消長)의 상태와 모든 길흉화복이 설명되어 있다.

수 있게 되어 등을 상하좌우로 움직여도 초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삽도32, 33)

조족은 궁중무용인 정재(呈才)때 풍악 진행의 신호로 사용하였던 붉은 비단으로 만든 초롱의 일종으로 용머리가 장식된 긴 대 끝에 초롱을 달아 초롱을 세우면 풍악이 진행되고 누이면 풍악이 그쳤다.



(삽도32) 조족등



(삽도33) 조족등

사람들은 천지 자연과 인생의 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천지 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생활에 실천한다면 인간의 흥망성쇠와 길흉화복 등이 천지 자연의 도에 합치될 수 있다고 믿었다.”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2002, 102-103쪽

- 19) “박쥐는 한자 표기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과 같이 소리난다고 해서 일찍부터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박쥐 두 마리를 그린 문양은 쌍복(雙福)을 의미하고 박쥐 다섯 마리를 그린 문양은 오복(五福)을 상징한다.”

——, 위의 책, 48쪽

Ⅲ. 조선 후기 이전의 등기의 역사

등기는 종교, 외래문화의 영향, 생활수준 등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크게 조선시대 이전인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 할 수 있다.

1.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는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문화와 이 시기에 유입된 불교의 영향으로 등기도 화려하고 권위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시대는 모닥불이나 햇불에서 한단계 발전한 동·식물의 기름을 이용한 유등양식이 사용되었고 이와 함께 종지형의 등잔과 고배각(高杯脚) 형태의 토제 등잔대가 만들어졌다. 호마유(胡麻油)가 불전용으로 삼국시대에 사용된 것을 『삼국유사』의 선율환생(善律還生)에서 볼 수 있다.²⁰⁾ 또한 통일신라시대

20) 卷5 感通(제7) 善律還生

“望德寺僧善律，施錢欲成六百般若，功未周... 胡麻油埋於床下，并藏緻密布於寢褥間，願師取吾油點佛燈，貨其布爲經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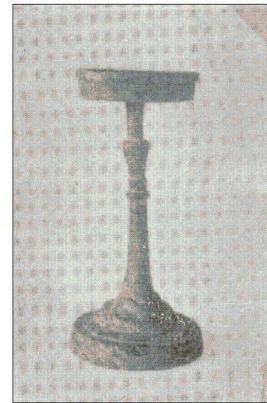
“망덕사(望德寺)의 승려 선율(善律)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盤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 [陰府] 사자에게 쫓겨 열라대왕에게 갔다. 열라대왕이 물었다. “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하였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열라대왕이 말하였다. ‘너의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 [寶典] 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하였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 베끼는 비용 [經幅] 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역시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죽은지 10일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장사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에 유시(油市)가 열린 기록이 『삼국유사』²¹⁾에 나타난 것을 보아 기름을 이용한 등기의 사용이 널리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쌍영총(雙楹塚 5-6세기) 현실 동벽 행렬도(삽도34)는 승려와 귀부인이 시종을 거느리고 불공을 드리러 가는 모습으로 보이며 맨 앞에 머리에 등대(燈臺)를 이고 가는 녹의동자(綠衣童子)의 모습으로 이 시대 등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등대의 형태는 한(漢B.C..202 -A.D.220)대의 청동촛대(삽도35)와 그 모습이 흡사하며, 상단에 깊이가 있는 넓은 반상(盤上)에 고유(膏油)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²²⁾



(삽도34) 고구려 쌍영총 벽화



(삽도35) 청동촛대

백제의 무령왕능(525년) 현실 등감에서 출토된 종지형 백자 등잔(삽도 36, 37)은 단순한 이 시대의 부장품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사

사할 동안이나 살려달라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주었다. 선율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은 죽은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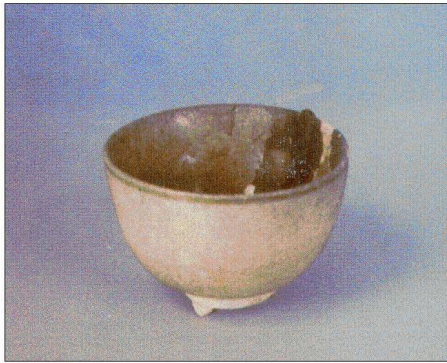
일연, 김원중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2003, 534-535쪽

21) “경진년(920)에 유암(乳岩) 밑에 유시(油市)를 세웠으므로, 지금도 세속에서 이시(利市)를 유하(乳下)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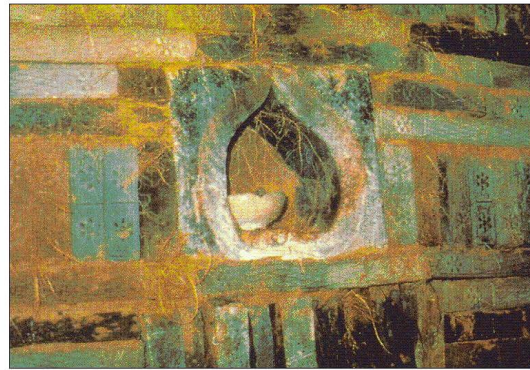
_____, 위의 책, 왕력(王曆)

22) 한국전력주식회사, 앞의 책, 206-208쪽

용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삼국에서는 백자가 생산되지 않았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교류가 빈번했던 육조시대의 양(梁 502-557년) 혹은 그 외의 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추측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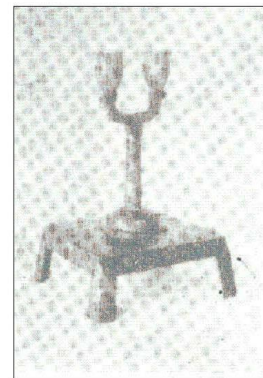


(삽도36) 무령왕능, 백자 등잔



(삽도37) 무령왕능 현실 등잔

신라시대의 쌍등청동촛대(雙燈靑銅燭臺)(삽도38)는 경남 산청 단속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동시대 수입품으로 육조시대의 수법이 나타난다.²⁴⁾ 이 촛대는 다리가 네개 달린 대좌 위에 올려져 있는데 복발형 받침대 위에 죽절문의 간주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한 쌍의 연화형의 축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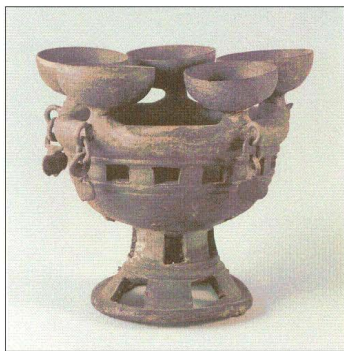
신라의 금령총(5-6세기) 출토품인 다등식 토기등잔(삽도38)쌍등 청동 촛대

23) “무령왕능에서 6개의 백자잔이 나왔는데 그 중 5개는 무덤 안을 밝히는 타다 남은 심지가 남아있다. 백자는 유리질(琉璃質)의 흰색 태토(胎土)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2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자기(磁器)를 말하는데 주로 고위층에서만 사용하였던 품격 높은 용기이다. 무령왕능에서 나온 등잔도 이러한 백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양, 태토, 유약이 같아서 같은 가마에서 구워낸 것이다. 이 백자잔은 주로 청자를 구워내던 중국 남조의 월주요 계통의 가마에서 태토와 유약만 달리하여 청자와 함께 구워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백자 생산의 선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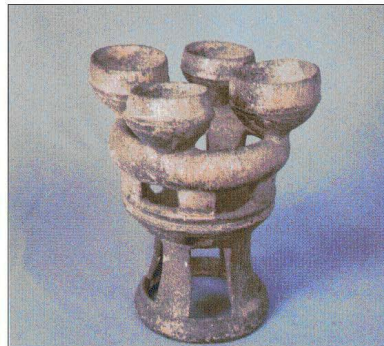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능』, 국립공주박물관, 1998, 55쪽

24)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앞의 책, 209쪽

도39, 40)은 고배각 위에 5개의 등잔이 놓여 있는데, 기름을 넣으면 관처럼 연결된 밑 부분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 같은 시간 동안 불을 켤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한(漢)대의 독립된 등잔이(삽도41) 따로 놓여 있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삽도39) 토기 등잔, 신라



(삽도40) 토기 등잔, 신라



(삽도41) 토기 등잔
漢代

신라시대의 대표적 토기로 이형토기(異形土器)를 들 수 있는데 이형 토기란 인물, 동물, 가옥, 기물 등 각종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작의 목적이 형태의 표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릇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²⁵⁾ 동물형 이형토기(삽도42-45)는 주로 낙동강 유역의 가야와 경주 지역의 신라 유물들로서 공통적 특징은 내부가 비어 있고 꼬리 부분이나 등부분이 뚫려 있어 기름을 유입할 수 있게 하여 등기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漢)대의 유물 한항촉정도(漢缸燭錠圖)(삽도46)를 들 수 있다.²⁶⁾ 또한 시대적으로 한참 후인 일본 에도시대(1600-1868년)의 등기(삽도47) 중 한(漢)대의 등기와 형태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속이 빈 동물형 토기는 낙동강 지방의 새, 말의 신앙사상과 합쳐져 이 지방에서만 나타나는 명기(明器)로서 의식

25) 김원용·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215쪽

26)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앞의 책, 212-216쪽

용기나 제기이며, 이들의 형태가 지닌 희생이라는 의미와 고려해보건데 신앙과 관련된 의미라는 견해도 있다.²⁷⁾ 이러한 동물형 토기는 실제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장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삽도42)이형토기, 가야



(삽도43)이형토기,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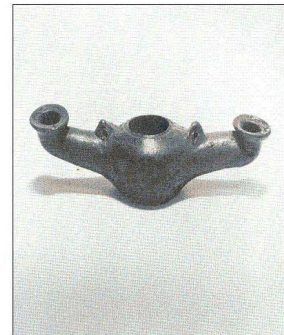
(삽도44)이형토기, 신라



(삽도45)이형토기,
가야



(삽도46)한항축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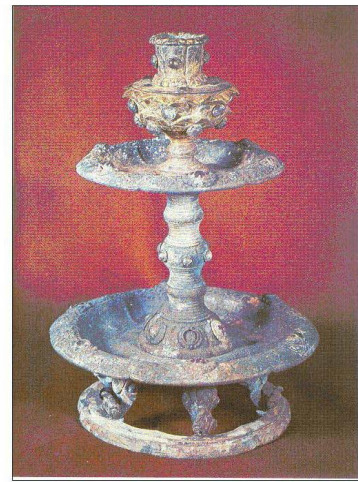


(삽도47) 에도 시대의
등기

통일신라시대(618-935년)는 삼국시대에 수용된 불교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신라 시대는 남북조시대의 문화를 계승하고 서역과 남방의 문화를 흡수한 당(唐 618-906년)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정교하고 화려한 귀족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 최대의 걸작품으로

27) 김원용·안휘준, 앞의 책, 215쪽

금동수정장식촛대[金銅水晶裝飾燭臺](삽도48)를 꼽을 수 있는데, 받침은 아래의 것이 크고 윗 것이 작은 2중의 6개의 꽃잎 모양으로 만든 수반형으로 그 사이의 기둥에는 고복형(鼓腹形)의 마디가 있다. 그 밑의 받침은 6개의 U자형으로 구부린 동물의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는 다리를 고정시키는 둥근 테가 있다. 받침의 표면에는 꽃무늬가 화려하게 음각되고 간지(間地)에는 어자문(魚字紋)으로 채웠고 곳곳에 수정이 박혀있다. 받침 상단에는 짧은 목을 세우고 그 위에 홀꽃잎과 두꺼운 잎새의 연꽃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초꽃이가 있는데 연꽃 모양으로 되었으며 여기에도 수정이 감입되어 있다. 촛대에 박힌 수정은 모두 48개이며 지금은 도금이 대부분 탈락된 상태이다.²⁸⁾ 촛대에 촛농의 흔적이보이며 쌍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궁궐이나 고관집 보다는 절의 공양용으로서 상징과 귀중함을 내보이는 기품과 초꽃이의 표준이자 대표적인 상징성이 보이는 작품이다.²⁹⁾



(삽도48)금동수정장식촛대

불교의 전성기로 당의 영향을 받아 왕이 참석한 성대한 연등회에 대하여 『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景文王 六年, 春正月, ..., 十五日, 幸皇龍寺看燈, 仍賜燕百寮,

眞聖王 四年, 春正月, 日暈五重, 十五日, 幸皇龍寺看燈.

경문왕 6년(866년) 정월....15일에 왕이 황룡사에 행행하여 연등(燃燈)을 보고 이내 백관에게 사연(賜宴)하였다....

진성왕 4년(890년) 정월에 해무리가 다섯 겹으로 들렸다. 15일에 왕이 황룡사에 거등하여 연등을 관람하였다.³⁰⁾

28) 진흥섭, 『韓國美術全集 8 金屬工藝』, 동화출판사, 1974, 151쪽

29) 강순형, 「수정박이 금동초꽃이 살핌」, 『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95, 224-225쪽

2. 고려시대

고려시대(918-1392년)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계승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아 승려가 왕족과 함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귀족적 문화를 이루었고, 왕공귀족들과 고위 승려들을 위한 세련된 상층 문화와 서민들의 하층 문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등의 불교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졌으며, 호국불교로 시작한 불교가 차츰 개인의 기복신앙에 중점을 두면서 불교 행사에 사용되었던 등기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하였고 제등과 종교적 의식용 등기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초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졌지만, 그 질과 양에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는 왕실, 상류계층, 사찰 등의 의식이나 연회에 겨우 이용되었고 일반에서는 햇불(燎)과 유등을 사용하였다.³⁰⁾ 고려 문종(文宗) 11년(1057년) 거란의 사신 전송시 많은 햇불로 전송을 하였는데, 거란에서는 혼석(昏夕)에만 화촉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등축은 백성의 고향이니 날이 밝을 때 빈객을 접대하자 건의하여 문종이 이를 따랐다고 한다. 또한 각촉(刻燭)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초에

30) 김부식·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2004, 289·297·302·304쪽

31) 卷22 雜俗 庭燎

“麗俗尚夜飲。而祇待使人尤謹。每宴罷常侵夜分。自山島州縣郡郊亭館。皆於庭中。束芟明燎。以散員執之。使者歸館。則羅列在前。相比而行。”

고려의 풍속은 밤에 연회를 즐기는데 사신을 모시는데 더욱 공경하여 매 연회는 밤이 깊어서 끝난다. 이러한 것은 산간 도서 군현의 교정관에서 볼 수 있다. 연회시에는 뜰 가운데 풀을 베어 엮어서 햇불을 밝게 하고 산원이 이를 손에 잡고 있다. 또한 사신이 관사로 돌아 갈 때 햇불 잡은 자가 앞서서 길을 밝혀 전송하였다.(필자 해석)

卷22 雜俗 秉燭

“王府公會。舊不燃燭。比稍稍能造。大者如椽。小者亦長及二尺。然終不甚明快。會慶乾德之燕。庭中設紅紗燭籠。用綠衣人摺笏執之。問之云是新入仕之人。舊記謂初登第者。今知未必皆一等流品也”

왕부의 공회에는 이전에는 초를 켜지 않았으나 요즘 조금 잘 만든다. 큰 것은 서까래와 같고 작은 것도 길이가 이척에 달한다. 그러나 심히 밝지는 못하다. 경회전 건덕전의 연회에는 뜰 가운데 붉은 비단의 초롱을 설치하여 녹색옷을 입은 사람이 홀을 꿇고 이를 잡게 하였다....(필자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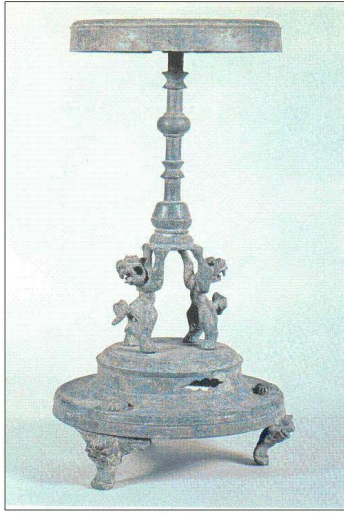
徐 兢, 『宣和奉使高麗圖經』, 臺灣商務印書館印行, 1933, 75-76쪽

금을 그어 시각을 정하여 시를 짓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과시(科試)를 각 축으로 한정한다. 고려 후기에는 사치풍조가 만연하여 궁내에서만 사용하던 홍대초가 일반 사가의 상제(喪祭)나 혼례에도 사용되어 충렬왕(忠烈王) 4년(1278년)에는 일반인의 홍대초 사용을 금하였다. 이와같이 일반인의 사용은 억제한 반면, 왕실의 불사에는 막대한 양의 화려한 홍대초를 이용하였다.³²⁾ 촛대가 다른 등기보다 조형 의장이 풍부한 이유는 값비싼 초를 사용하는 상류계층의 수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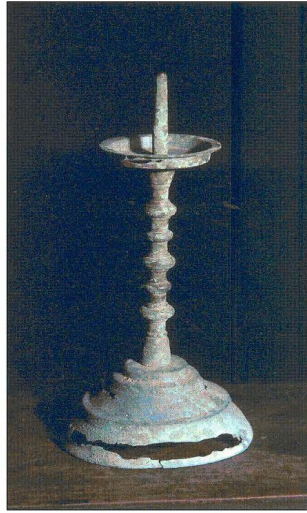
청동쌍사자촛대(靑桐雙獅子燭臺)(삽도49)는 밑에 동물 얼굴 모양의 얇은 발이 달려 원형의 대를 받치고 그 위에 연화 문양의 못이 있어 이를 고정시켰다. 중앙에는 측면에 조각 무늬가 있는 둥글고 높은 괴임과 그 위로 마주 보는 두 마리 사자가 뒷발로 서서 앞발로 위를 바치고 있는데 머리는 각각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다. 사자 위에는 복련과 양련으로 보이는 선각이 보이는 괴임이 존재하고 장고형의 간주가 있으며 맨 위에 높은 받침대가 있다.³³⁾ 청동 촛대는(삽도50) 복발형 또는 이중 복발형의 받침대에 연주문의 간주가 세워지고 그 위에 초꽃이 받침이 있다. 연주문은 일정한 형태로, 또는 크기가 다른 것을 규칙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형태는 의식용 촛대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청자 촛대는(삽도51) 높이가 10cm 정도로 삼단으로 되어있는 육각형의 받침대를 꽃잎 모양으로 만들고 12군데 구멍을 뚫어 레이스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22권, 327-3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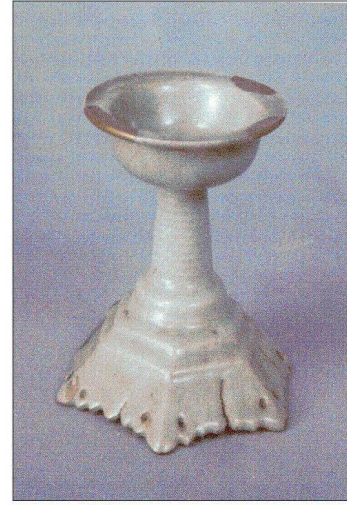
33) 진홍섭, 앞의 책, 152쪽



(삽도49) 청동쌍사자
촛대



(삽도50) 청동 촛대



(삽도51) 청자 촛대

3. 조선 전기

조선시대(1392-1910년)는 우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으로 중국을 받들고 일본, 북방민족과는 사이 좋게 지내고자 하였으나, 국방을 소홀히 한 탓으로 왜란과 호란으로 우리 민족이 일구어 온 문화적 업적을 심하게 훼손당하였다. 조선왕조가 엄격하게 시행한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물론 미술과 문화의 측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억불정책은 고려시대의 문화적 업적을 폐기하거나 기피함으로써 보다 큰 새 도약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병행한 승유정책은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하여 붕당정치와 사화가 빈발한 반면에, 학문을 중히 여기고 유교적 미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 창출의 기회를 가져왔다. 이 유교적 미의식은 과장과 허세를 피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성격의 자연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이 특징이다.³⁴⁾ 조선 시대는 임진왜란(1592-1598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 귀족적 문화를 이루고 정신적 배경이

34) 김원용·안휘준, 앞의 책, 452-453쪽

되었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명(明.1368-1644년)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 사회 배경과 억불숭유 정책으로 제등과 같은 종교적 수요의 등기는 쇠퇴하는 반면 수초롱[手燭籠], 조족등(照足燈)과 같은 실용적인 휴대용 등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반면 조선후기에 오면서 임진·병자 양란은 국토의 초토화를 초래했으며 당쟁이 불러온 국력의 약화가 있었으나, 영·정조 시대에 시장경제의 발달로 국력이 신장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등기가 서민층까지 널리 보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등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중기 이후에 각종 초가 개발되고 후기에는 일반 서민층까지 초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검약한 생활을 장려하던 조선 초기의 왕실에서 실외조명 수단으로 초 대신 거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예컨대, 태종(太宗)시에는 근검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래 궁중에서 사용된 홍대초 대신 거화를 권장했으며, 세종(世宗)시에는 거화가 화재의 위험이 있어 포초로 바꾸게 하였다. 또한 성종(成宗)시에는 장례시 거화의 수를 신분에 따라 제한하게 하고 중종(中宗)시에는 왕의 능행시 거화가 너무 많아 민폐를 끼친다고 하였다.³⁵⁾ 영조(英祖)시에는 용주의 혼인에 자초(紫草)로 물들인 화촉(華燭)을 쓰도록 했는데, 앞서 당주홍(唐朱紅)으로 물들인 것을 사용하여 공가(貢價)가 몇배나 되었으므로 이는 외면치레라 하여 고치도록 한 것이다.³⁶⁾ 각 왕대를 통하여 등촉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꼭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존하는 등기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것으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조선 전기의 철제 등가와 촛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철제 등가는(삽도 52, 53)운두가 매우 낮은 반면 지름이 넓은 원형의 밑받침대에 죽절문이 촘촘하게 조각된 간주와 이음새 부분의 요철문과 소용돌

35)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앞의 책, 81-83쪽

3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영조실록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240쪽

이 문양이 특색이 있으며 등잔 받침대에 네줄의 홈을 파서 멧을 살렸다. 또한 철제 촛대의 밑받침대에 세 개의 다리가 달렸는데 시대가 내려가면서 다리는 사라지고 바닥이 평평한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삽도52) 철제 등가



(삽도53) 철제 촛대

IV. 조선 후기 등기의 유형과 형식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는 고려시대로부터 계승된 사회 기반과 유교적 이념 위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은 초기에는 양반·상민·천인으로 중기 이후에는 양반·중인·상민·천인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사대부계층을 지칭하며 이들은 학문은 물론이며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갔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농지개간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서민층에서 경제력이 있는 상인·부호 등이 서민 지주로 성장하였고 또한 역관·의관 등의 중인 계층이 부를 축적하고 문학적 소양을 쌓아 사회적 지위를 높여 신분상승을 하게 되었다. 신흥 부유층인 이들은 양반의 생활을 선망하여 일상 생활용품인 가구나 공예품 등을 솜씨 좋은 장인의 손을 빌어 이용하게 되었고 반면 서민층에서는 손재주 있는 주위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손수 제작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당시 등기를 만드는데 규격화된 형태나 치수가 없으면서도 모양이나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서민층은 상류계층의 것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마무리가 다소 거칠고 형태가 조악한 것이 있으나 개중에는 소박하고 소재에 따라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도 눈에 띈다.

본 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등기 중 등잔대와 촛대를 중심으로 우선 유형별로 구분, 분석하고 제 2절에서는 형식과 기법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재료와 기법은 물론 특히 등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을 중심으로 다른 민속공예품과 함께 비교하면서 상류계층과 서민층이 사용한 등기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신분 계급처럼 등기의 사용에 있어 나타나는

상류계층과 서민층의 뚜렷한 차이점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제 3절에서는 등기에 나타난 비례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등기의 유형(類型)

1) 등잔대

① 등경(燈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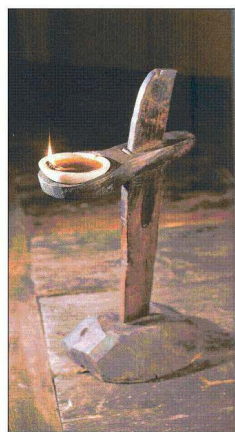
등경은 가장 널리 사용된 등잔대의 형태로 등경걸이라고도 하며 등잔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게 걸대가 부착된 형태이며, 이 모습이 두(斗)자와 같다 하여 광명두(光明斗)라고도 불리운다.³⁷⁾ 원형, 다각형, 명형등의 밑받침 위에 3-4단의 층이 있는 기둥이 있으며 그곳에 걸대가 설치되어 등잔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등잔의 밑 부분에 또 하나의 걸대를 부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름받이를 설치하여 기름이나 심지의 재를 받게 만든 것도 있다. 목제 등경은 간주가 밑받침대의 한쪽에 치우친 것이 대부분이고 유제 등경은 간주가 모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재료의 특성에 기인한 형태로 보인다. 왜냐하면 목제의 경우 등경걸이에 등잔을 놓았을 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하여 간주를 한쪽으로 세웠고, 유제 등경은 놋쇠가 무겁기 때문에 간주가 가운데 위치하여도 중심을 잡는데 큰 이상이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등경은 높이가 50-60cm가 대부분이나 큰 것은 80cm가 넘는 것도 있으며, 불의 위치는 40-50cm 정도로 좌식생활이 기본인 실내에서 앉은 자세의 얼굴을 밝혀주는 높이이며 작업 범위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산림경제』³⁸⁾에 가정에 마련해 두면 좋을 민구의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 이는 농가를 기준한 것이고, 당시 사회의 중류 이상의 계급, 즉 시골 양반이나 선비 신분의 가

37) 이종석, 앞의 글,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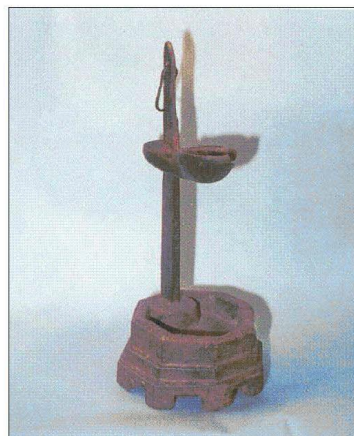
38) 숙종 때 실학자 유암 홍만선(1664-1715)이 농업과 일상 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백과사전적인 책.

정을 의식한 기록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자급자족을 권유한 민구 230종에 달하는 목록 중에 사랑용품의 하나로 서등과 더불어 등경이 기재되어 있는 것³⁹⁾을 볼 때 널리 이용된 생활 필수 품목인 것을 알 수 있다.

목제 등경 가운데 (삽도54)는 누가 보아도 서민층에서 사용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통나무를 거칠게 잘라 기교 없이 만들었지만 그 단순하고 소박함에서 현대적인 멋을 느낄 수 있다. 머슴방 한 구석에 놓여 그들의 피곤한 밤을 따스하게 비추어 주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삽도55)는 밑받침대에 안정적인 8개의 다리가 있으며 팔각형의 받침대는 비교적 깊이가 있어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실용적이며 마무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사용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이와 달리 상류계층이 사용한 금속제 등경 같은 경우 특히나 유제 등경 (삽도56, 57)은 대부분 원형, 명형의 밑받침대 위에 3-4개의 단이 있는 고사리 말림형의 간주가 있고 등잔걸이와 기름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밑받침 부분은 재떨이나 기타 간단한 물건을 놓는데 이용되거나 서랍을 만들어 실용성을 더하였다. 또한 간주에 파초형의 방풍선이 있는 촛대를 탈·부착할 수 있게 하여 촛대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삽도54) 목제 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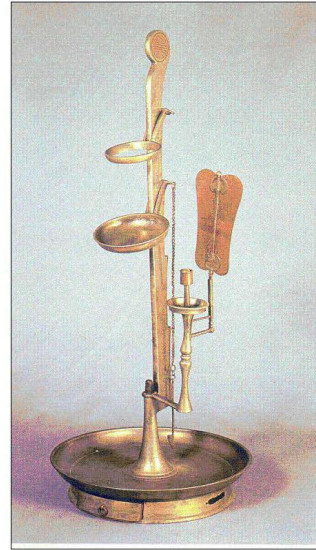


(삽도55) 목제 등경

39)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상』, 열화당, 2001, 41-43쪽



(삽도56) 유제 등경



(삽도57) 백동 등경 겸용
촛대

② 등가(燈架)

등잔대의 또 다른 형태인 등가는 원형, 사각형, 팔각형, 명형 등의 밑받침대에 다양한 모양의 간주를 세우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로 석유 등잔이 쓰이면서 점차 보편화 되었다.⁴⁰⁾ 등경과 달리 등가는 간주 부분에 죽절형, 연주형, 장고형, 끈노새김 등 갖가지 장식을 한 것이 많고 밑받침대 부분도 서랍을 만들거나 재떨이 겸용으로 실용적인 것과 조각 등을 하여 장식성을 높인 것이 있다. 목제 등가인 경우 금속제와 달리 손수 제작이 용이하였으므로, 장인 솜씨의 정교한 것부터 일반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직접 만든 질박하고도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등가의 높이는 등잔의 위치가 고정식인 관계로 등경보다는 키가 8-10cm 정도 작은 것이 대부분이고 촛대와 등가 겸용의 등잔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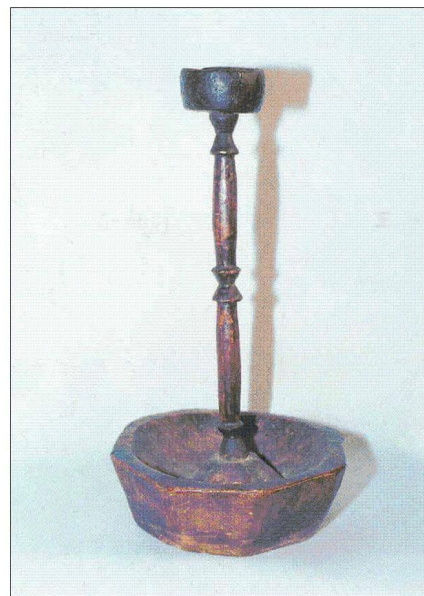
등가 가운데 목제로 만들어진 목제등가의 경우 원형, 다각형의 밑받침대에 죽절형, 장고형과 이의 변형으로 간주를 조각하였으며 상부의 등잔 받

40) 한국등잔박물관, 앞의 책,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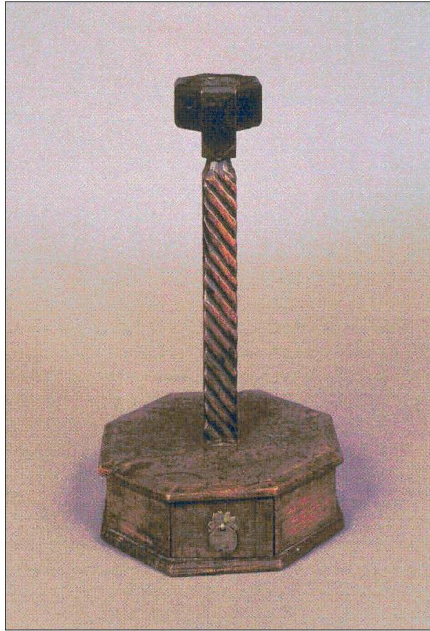
침대는 대개가 밑받침대와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형태의 등가가 주류를 이룬다.(삽도 58,59) 그런가 하면 밑받침대에 실용적인 서랍을 만들고 간주 부분은 빗살무늬로 조각을 하거나, 8개의 다리와 위아래는 굽고 가운데만 잘록한 간주가 특색인 등가, 18개의 꽃잎 모양의 밑받침대와 끈노새김형의 간주, 가는 꽃잎 모양이 이중으로 조각되어 있는 등가는 균형미와 섬세함이 돋보인다.(삽도 60-62) 반면 굽은 나무의 뿌리 부분을 이용한 사각형의 밑받침대에는 8각의 별모양 무늬와 가장자리를 구름 모양으로 조각을 하거나 간주 부분을 나무의 휘어짐을 그대로 살려 나타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나무의 생김새를 자연 그대로 살린 자유롭고 창조적인 형태의 등가도 많이 남아 있다.(삽도 63-65) 이와 같이 등가에 있어서도 상류계층과 서민층이 사용한 형태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삽도58) 목제 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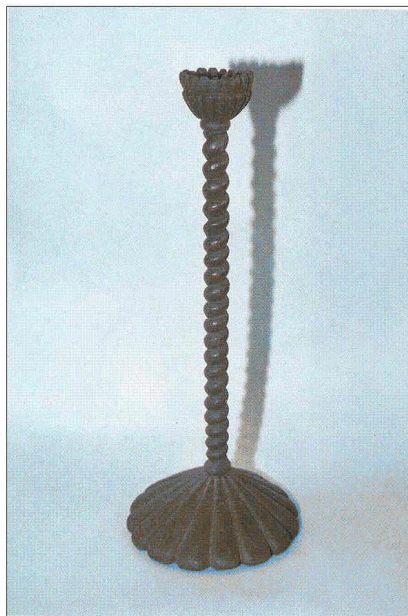
(삽도59) 목제 등가



(삽도60) 목제 등가



(삽도61) 목제 등가



(삽도62) 목제 등가



(삽도63) 목제 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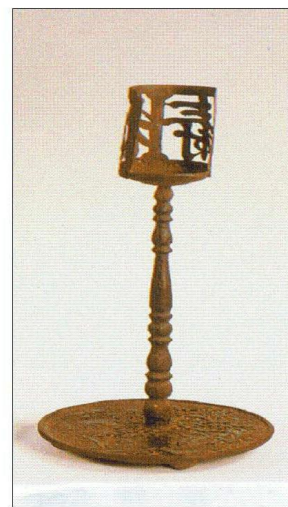


(삽도64) 목제 등가



(삽도65) 목제 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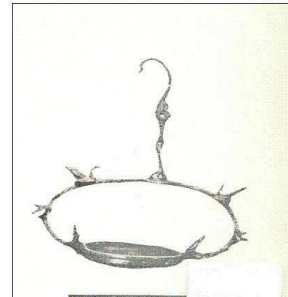
목제 등가의 위와 같은 특징과 달리 철제 등가의 경우 밑받침대에 있어서 목제 등가보다 운두가 얇고 간주도 비교적 가늘게 들었는데 이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잔 받침대에 수(壽)와 복(福)자를 투각하여 장식성을 살렸다. (삽도66)



(삽도66) 철제 등가

③ 주등(廚燈)

주등의 형태는 원형, 팔각형 등의 밑받침대와 등잔 받침대, 간주로 되어 있고 간주 부분이 다른 등잔대와 달리 벽에 걸 수 있는 걸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부엌의 벽면에 걸어 사용하였다. 걸대의 윗 부분에 화문형(花紋形), 조형(鳥形) 장식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새의 형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중국 한(漢)대의 구촛대[鉤燭臺](삽도67)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⁴¹⁾ 주등은 높이가 20-30cm 정도이고 밑받침의 직경은 10cm 이내의 소형이 대부분이다.



(삽도67)구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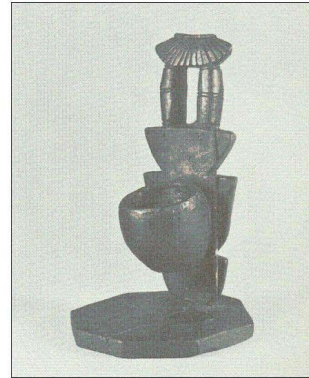
금속제 주등은 원형의 밑받침대와 등근 A자 형의 간주에 등잔 걸대가 연결되어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간주의 상단 중앙에 심방형의 돌기가 있고 4마리의 새의 머리가 중앙을 향해 조각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별모양의 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간주부분에 명(明), 월(月), 남(男)자 등이 다소 서투른 솜씨로 새겨져 있고 심방형 부분에도 글씨의 흔적이 존재하나, 현재는 탈감이 심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삽도68)

그런가 하면 목제 주등 중에는 간주의 상부에 기와집 모양으로 조각을 하여 전체적으로 누각과 같은 형태를 띤 것이 있으며, (삽도69) 석제 주등은 큰 돌의 속을 파내어 그 안에 등잔을 넣을 수 있게 하였다. 상부에 한쌍의 마주보는 닭의 머리를 조각하였고 그 가운데에 국화문을 새겨 넣었다.(삽도70)

41) 김삼대자, 앞의 논문, 11쪽



(삽도68) 철제 주등



(삽도69) 목제 주등



(삽도70) 석제 주등

④ 소형 등잔(小形燈盞)

호형 등잔의 형태로 등잔과 등잔대를 함께 붙여 일체식으로 만든것으로 주로 서안(書案)에 올려놓고 책을 읽을 때 사용하여 서등(書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소형 등잔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등잔은 석유 유입 후에 사용하던 것으로 형태는 등잔 부분에 심지꽃이가 달린 뚜껑이 있고 간주 부분에 속하는 몸체는 죽절형 등의 무늬를 새기고 밑받침 부분은 복발형, 명형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등잔대와는 또 다른 조형미를 보인다. 백자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불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심지 부분이 한쌍 혹은 두쌍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기름 소모량이 많아 일명 부자 등잔이라 칭하여지기도 하였다.⁴²⁾ 높이는 20cm 정도로 대부분 서안의 높이가 30cm 내외인 것을 보면 불꽃이 다른 등기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백자 등잔의 경우는 복발형의 밑부분과 몸체 부분에 다양한 죽절문의 무늬를 넣어 작은 탑을 연상 시키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등잔의 상부에 심지꽃이 뚜껑으로 덮게 되어 있는데 사심지 백자 등잔은 상부 뚜껑에 심지꽃이 4개 있었으나 현재 2개는 흔적만 있고 상부 뚜껑에 2개의 심지꽃이 남아 있다.(삽도 71,72) 또 다른 형태로는 수반형의 등잔대가 있는데 원형, 연꽃형의 수반 형태에 죽절문, 육각 또는 원기둥형의 간주, 호형 등잔이 모두 일체식으로 되어 있다.(삽도 73,74)



(삽도 71) 소형 등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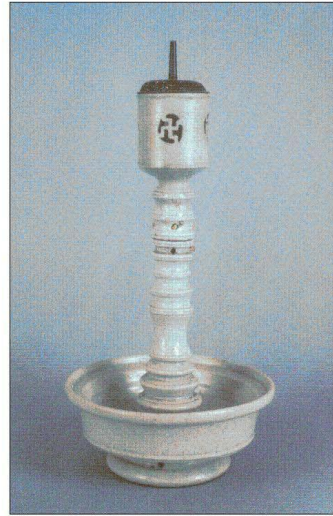


(삽도72) 쌍심지 등잔

42) 『등잔』, 한국등잔박물관, 1998, 70쪽



(삽도73) 백자 등잔



(삽도74) 백자 등잔

2) 촛대

① 의식용 촛대

촛대는 크게 의식용 촛대와 일상생활용 촛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용 촛대의 기본 형태인 죽절식 촛대는 그 기원을 고려시대의 광명대(光明臺)⁴³⁾를 본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식 등기의 일종으로 왕실이나 민가의 의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의식용은 주로 쌍으로 사용되었고 신분에 따라 2쌍 혹은 4쌍 이상 이용한 바 있다. 왕실의 예·의식에 사용되던 두석대촛대[豆錫大燭臺]는 2m가 넘는 초대형으로 간주의 중간 부분을 분해하여 필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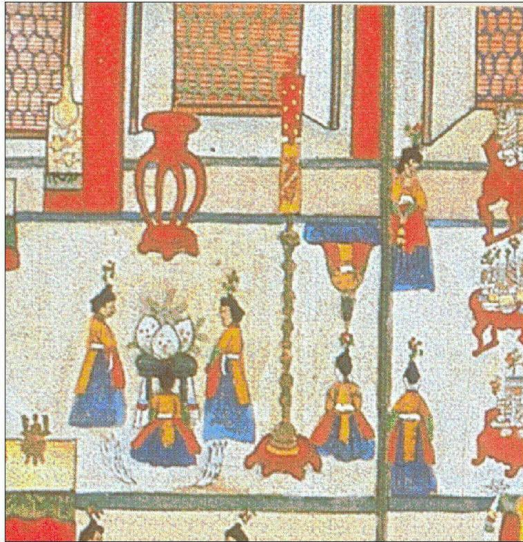
43) 券28 供張. 光明臺

“光明臺. 擎燈燭之具也. 下有三足. 中立一幹. 形狀如竹. 逐節相承. 上有一盤. 中置一甌. 甌中有口可以燃燭. 若燃燈. 則易以銅缸. 貯油立炬. 鎮以小白石. 而絳紗籠之. 高四尺五寸. 盤面闊一尺五寸. 罩高六寸. 闊五寸.”

광명대는 등축을 떠받드는 기구이며, 하부에 세 개의 발이 있고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서 있는데, 형상은 대나무와 같으며 마디가 서로 이어져 있다. 위에 일반이 있고 가운데 하나의 사발이 있는데 사발 안에는 초를 켤 수 있으며, 만일 등을 켜려면 동향아리로 바꾸어 기름을 붓고 심지를 세워 조그만 하얀 돌로 눌러 놓고 붉은 비단으로 그것을 두른다. 높이는 사척 오촌 반면의 넓이는 일척 오촌 조의 높이는 육촌 넓이는 오촌이다. (필자 해석)

徐 兢, 앞의 책, 100쪽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삽도 75, 76)



(삽도75) <진연반차도>



(삽도76) <모당평생도> 회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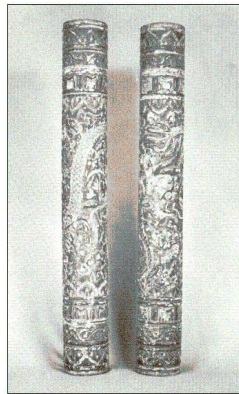
촛대의 크기는 2m가 넘는 것부터 20cm 정도의 작은 크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형태의 촛대는 현대까지도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 밑받침대가 복발형 또는 이중복발형인데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던 고배각 형태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간주 부분은 죽절형, 연주형과 그 변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초꽃이 받침과 초꽃이가 달려 있다. 이 외에도 촛대의 모양이 초의 형태를 띤 것이 있는데 주로 몸체 부분에 화려한 문양을 조각하여 의식용으로 사용하였다. 목제 촛대의 경우 초꽃이가 목제로 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철제나 유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목제가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목제 촛대를 초의 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세심하게 화문, 용문 등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삽도 77-79) 또한 촛대의 기본 형태로 원형의 밑받침대와 원형의 초꽃이 받침의 단순함을 간주의 중앙에 연주문으로 변화를 주었다. 초꽃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주철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

아 있다. (삽도 80, 81) 그 외에도 백자, 옥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촛대에 죽절문이 나타난다. (삽도 82-84)



(삽도77) 목제 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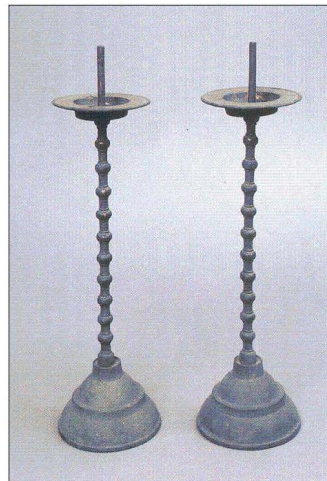
(삽도78) 목제 촛대



(삽도79) 목제 촛대



(삽도80) 목제 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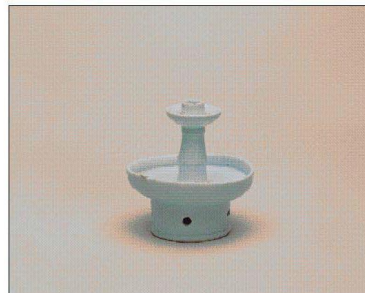
(삽도81) 황동제 촛대



(삽도82) 옥돌 촛대



(삽도83) 백자 촛대



(삽도84) 백자 촛대

② 일상생활용 촛대

조선 중기 이후 다양한 초의 개발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반층에서도 일상 생활용으로 촛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촛대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촛대의 형태는 밑받침과 간주 그리고 방풍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밑받침의 경우 원형, 명형, 육각형, 팔각형, 거북형 등의 형태를 지닌 것들이 있다. 간주는 죽절형, 연주형, 장고형과 이들의 변형이 있고, 방풍선(防風扇)은 원형, 나비형, 파초형, 박쥐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불을 끄거나 심지를 자르기 위한 불집계를 매달아 실용성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방풍선 위에 고깔이나 종 모양의 갓을 매달았는데 이는 초의 기름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풍선은 바람을 막아 촛불이 꺼지는 것을 막고, 빛의 방향을 조절하며, 반사에 의해 빛이 더욱 밝아지는 등의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장식적인 효과도 한몫을 하였다. 또한 사용과 보관에 편리하도록 분해,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있다. 상류계층의 기호에 어울리게 촛대에 전체적으로 입사(入絲) 기법⁴⁴⁾을 사용한 정교한 무늬의 조각은 솜씨가 뛰어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촛대의 높이는 45-80cm 정도로 등잔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으나 이는 방풍선의 높이까지를 말하고 대부분 촛불의 위치는 등잔대와 비슷한 높이를 나타낸다. 촛대의 밑받침과 방풍선 등에 사용된 문양에는 길상어문(吉祥語紋)과 십장생(十長生)⁴⁵⁾ 등이 있다. 촛대의 재료는 철, 황동, 백동의 다양

44) 입사(入絲)란 철이나 구리 등의 금속 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흠을 파고 여기에 다른 금속을 박아 넣은 것으로 흔히 상감이란 용어로도 쓰여 왔다. 우리나라의 입사공예는 삼국시대에는 금속의 선으로만 입사되다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선과 면이 병행된 끼움입사가 발전하고 가장 발달한 시기는 고려시대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음입사 기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入絲工藝』, 국립중앙박물관, 1997, 127-128쪽

45)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 해, 달 산, 내,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를 말하기도 하고 해, 돌,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산을 말하기도 한다. 불로장생의 비술을 터득한 신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동·식물 및 자연에서 장생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열 가지의 사물을 골라 그 표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중 일부만 있어도 십장생문이라 한다.”

한 금속이 사용되었는데 금속제는 목제 보다 재료도 귀하고 제작 방법이 어려워 장인(匠人)의 손을 거쳐 만들었으므로 주로 상류계층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판소리나 고전소설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흥부전의 경우 흥부가 박을 타자 온갖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장면과 이도령이 춘향의 방을 살펴보는 대목 등에서 호사스러운 가구와 함께 유제 촛대가 묘사되어 있다.⁴⁶⁾

8개의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형의 밑받침대에 부귀다남(富貴多男)의 길상어문이 새겨져 있는 목제 촛대는 죽절형의 간주부분에는 호형 등잔을 놓을 수 있게 눈쇠로 된 걸대가 부착되어 있어 촛대 겸 등가로 사용할 수 있다.(삽도85) 밑받침대가 거북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동제 촛대는 초꽃이 5엽의 양련과 복련이 맞댄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거북의 등에는 귀갑문이, 바닥에는 홍희원년(洪熙元年 1425)자가 선각되어 있다.(삽도86)

그 외에 방풍선이 달려 있는 형태의 목제 촛대는 6개의 연꽃잎형의 밑받침대에 화문을 양각하고 간주 부분을 사슬 모양으로 투각하였다. 방풍선은 연잎 모양으로 그 위에 개구리가 한 마리 조각되어 있고 촛대를 분해·조립할 수 있게 하였다.(삽도87) 금속제 촛대로 방풍선이 달려 있는 촛대들의 형식은 큰 변화가 없으며 방풍선을 파초형, 나비형, 원형 등으로 만들고 이음새 부분에 길상어문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불집게와 갓을 매달아 실용적인 면을 도모하였다.(삽도 88-90) 그 중 촛대에 전체적으로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한 무늬를 조각한 은입사 무쇠 촛대는 받침대, 간주, 초꽃이 받침, 방풍선 모두 육각형으로 통일되어 있어 일체감을 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4권, 215쪽

46) “특 타 놓으니, 온갖 세간이 들었는데, 자개함롱·반단이·용장·봉장... 눈촛대·광명두리”

김태준 역주, 『흥부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41쪽

“什物 치레 불작시면 泥金 돌미장·좋은 머릿장·자개함롱... 청동화로·전대야·鑿鑿 촛대·광명두리....”

김기동·전규태 편자, 『춘향전』, 서문당, 1984, 23쪽

며, 방풍선과 이음새 부분에 길상어문인 쌍희(雙喜)⁴⁷⁾자가 새겨져 있어 습씨가 뛰어난 장인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촛대는 주로 사랑방에서 사용하였다. (삽도91)



(삽도85) 목제 촛대 겸 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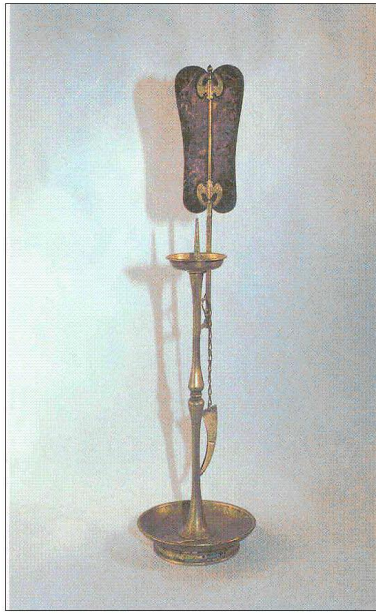


(삽도87) 목제 촛대



(삽도86) 철제 촛대

47) “용호상희(龍虎相喜)를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이 광의로 해석되어 천지 음양 화합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의미가 다시 확대되어 문무(文武)의 쌍희, 군신(君臣)의 쌍희, 부자간 쌍희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희(喜)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양으로 시문된다. 쌍희자는 음양의 화합을 이상으로 여기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허균, 앞의 책,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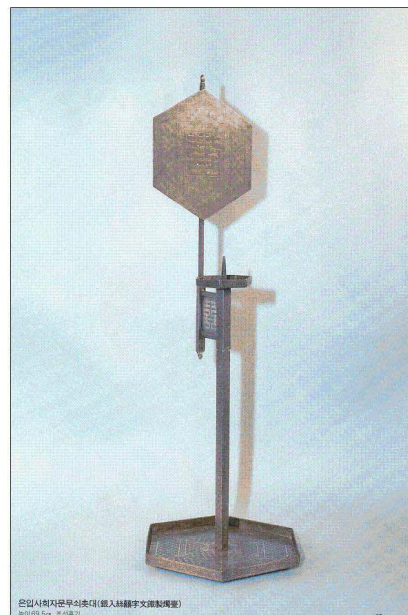
(삽도88) 파초형광배 유제 촛대



(삽도89) 원형광배 유제 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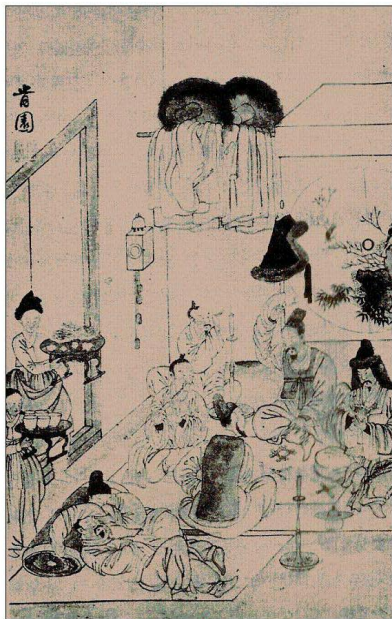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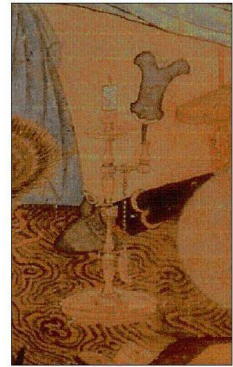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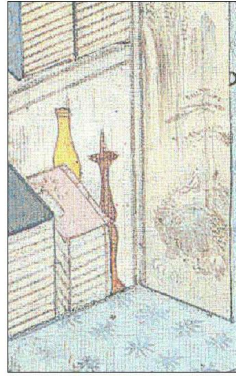
(삽도90) 나비형광배 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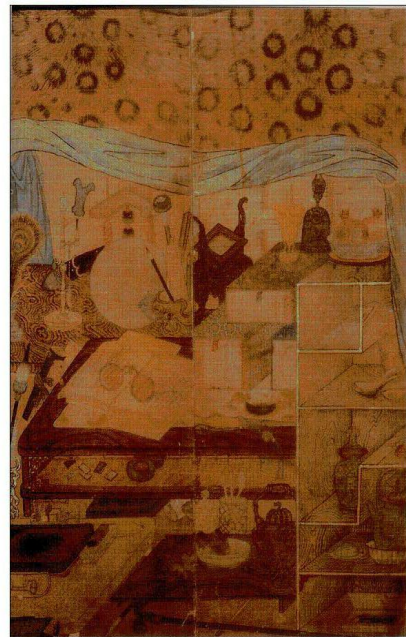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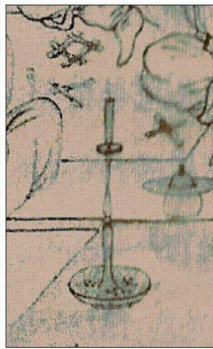
(삽도91) 은입사 무쇠 촛대



(삽도92) <독서여가>



(삽도93) <투전도>



(삽도94) <호피장막도>

양반가 사랑방 책장 속과 밤새워 노름하는 투전판 한옆에 또한 8폭의 장막도 중에 파초형의 방풍선이 달린 촛대가 눈에 띈다. (삽도 92-94)

2. 형식과 기법

1) 재료와 기법

조선시대는 반상의 계급이 뚜렷한 시대로 등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상류계층과 서민층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민층은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름을 이용하는 목재로 만든 등경, 등가와 같은 등잔대를 주로 사용하였고 부유한 상류계층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등경과 촛대가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등잔대의 경우 목재가 많이 쓰여졌는데 이는 재료의 수급면에서나 제작에 있어서 금속제 보다는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종을 이룬 것은 소나무로 이는 『고려사』 ‘고려세계’와 『道詵秘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수설과 관련지어 고려 초부터 인위적으로 식재를 하였으며, 또한 『고려사』 ‘형법금령조’에서 볼 수 있듯이 남벌을 금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소나무 식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연유로 우리나라 산야에 가장 많은 나무이고 또 그만큼 유용한 목재였다.⁴⁸⁾ 그 외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들이 사용되었는데 목재의 결함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들기름, 호두기름을 이용한 유도장법(油塗裝法)과 생칠(生漆), 주칠(朱漆), 숙칠(熟漆), 흑칠(黑漆)의 칠도장법(漆塗裝法)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등기에는 주로 주칠, 흑칠의 칠도장법이 이용되었다.⁴⁹⁾ 반면 금속제 등경이나 촛대는 목재보다 값도 비싸고 장인의 손을 거

48)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2003, 105쪽

49) “생칠은 옷나무 껍질에서 즙을 내어 칠하는 방법으로 맑고 밝은 빛을 내며 무늬가 어느 정도 투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숙칠은 옷나무를 불에 쪄서 받은 즙을 칠하는 것으로 불순물이 많아 주칠, 흑칠의 바탕칠로서 사용된다. 주칠은 주(朱)라고 하는 붉은 색이 나는 염료를 칠즙과 혼합하여 착색하므로써 붉은색을 띠는 칠도장법을 말하는데, 궁중용으로 일반 민가에는 사용이 금지 되었으나 간혹 사대부가의 내사용품(內舍用品)에 사용 되기도 했으며 가구의 홍장(紅粧)은 정비(正妃) 이외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흑칠은 칠 과정에서 숯돌가루나 황토를 불에 구워서 검은 가루로 만든 지분(地粉)을 생칠과 혼합하여 입힌 흑색의 칠도장법으로 주칠과 함께 주로 궁중이나 관청, 사대부가에서 사용하였고 일반 서민층에서는 소반, 연상(硯床), 도필통(圖筆筒) 등 소즙기(小 汁器)에 사용 하였다.”

쳐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상류계층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금속 중 철(鐵)은 선철(銑鐵), 주철(鑄鐵), 연철(鍊鐵), 강철(鋼鐵) 등으로 나누어지며 등기에는 주철(鑄鐵)이 주로 사용되었다.⁵⁰⁾ 철에 비하여 동(銅)은 질이 연하고 부식이 잘 안되며 전연성이 좋고 취급이 용이하나 경도(硬度)가 부족하고 용점(1083℃)이 높아 주로 합금을 해서 쓰며 동에는 황동, 청동, 백동 등이 있다.⁵¹⁾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에서 동을 채굴하여 유기의 생산을 장려하였고, 중기 이후에는 늦점 또는 늦전이라 불리는 유기전이 따로 있어 각종 식기류와 풍물류의 늦그릇을 판매하였다.

목재나 금속재 이외에 많이 이용된 것은 도자기로 조선시대는 백자가 도자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는 그 시대를 지배한 유교미학의 영향으로 믿어진다. 고려자기와는 달리 실용성과 견실성이 뛰어나며 임진왜란 이후 분청사기는 쇠퇴하고 그 후 백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백자 등잔이 일반에게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촛대에 많이 사용된 옥석은 귀한 재료였으므로 왕실의 연회, 의식용, 사원의 불전용에 주로 사용되었고, 옥석의 산지로는 해주, 단천, 성천, 이천, 수원, 평강, 통진 등이 있는데 그 중 성천과 단천의 질이 가장 우수하였다. 옥석을 촛대의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조선말기 청(淸)에서 수입한 양식 촛대의 대부분이 옥석으로 되어있다.⁵²⁾ 그 외에도 옹기, 돌, 노역개 등 다양한 재료가 등기에

구방희, 「조선조 등기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0, 32쪽

50) 주철은 순철에 탄소(17%-46%)와 규소(0.5%-3.5%)를 가미한 것으로 강철보다 용융점이 낮아 복잡한 것도 구조하기 쉽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격을 가하면 깨어지기 쉽고 단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51) 황동(黃銅)은 진유 또는 늦쇠라 하며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것으로 순동에 비해 경도가 높고 신축성과 유동성이 좋아 주물로 사용하기 좋고 견고성과 내구성이 좋다. 청동(靑銅)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것으로 순동이나 황동에 비해 구조성이 좋고 잘 견디므로 예로부터 화폐, 종, 동상 등의 재료로 쓰였으며 백동(白銅)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은과 비슷한 흰빛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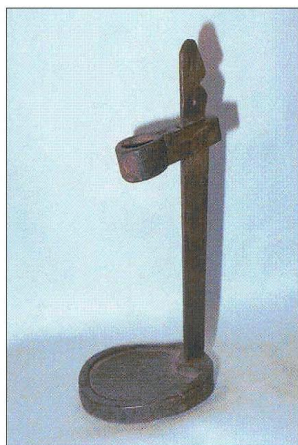
이태숙, 「조선조 등기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6, 46-47쪽

52) 김삼대자, 앞의 논문,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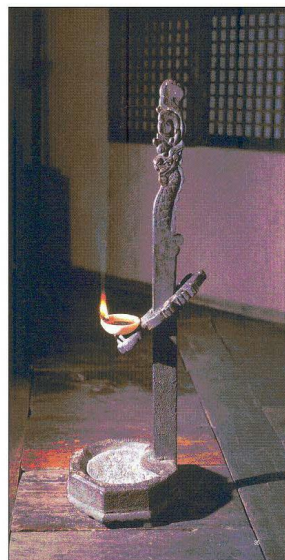
사용되었다.

(삽도95)는 목제 등경으로 일반 서민층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소재는 소나무로 흑칠이 되어 있으며 안정감이 있는 넓이의 밑받침대의 뒤쪽으로 간주를 곧게 세웠다. 간주는 특별한 장식없이 상단에 두 개의 홈을 파서 등잔 걸대를 걸 수 있게 하였는데 간주 상부의 이러한 모양은 유제 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고사리말림의 형태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삽도96)은 상류계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목제 등경으로 소재는 소나무이고 흑칠이 되어 있으며 평균치보다 밑지름은 5cm, 높이는 25cm 정도가 크며 정팔각형 밑받침대의 뒤쪽에 곧게 세워진 간주 상단에 용머리 문양을 매우 세심하게 조각하였다. 또한 등잔걸대 부분에도 조각을 하여 용문양과 조화를 이룬 세련미가 넘치는 작품이다.

위의 목제 등경을 비교해 보면 소재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등경의 크기와 장식성에 있어 일반 서민층과 상류계층간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된다.



(삽도95) 목제 등경



(삽도96) 목제 등경

2) 문양

조선시대 등기에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는데 등잔대는 등가의 간주 부분에서, 촛대의 경우 일상생활용 촛대에서 여러 가지 문양을 볼 수 있다. 등가의 간주에 보이는 문양은 죽절문, 연주문과 이들의 변형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인 문양이 많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문양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공예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죽절문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목제품으로 책장이나 경상의 다리부분, 소반의 다리부분, 사당 안에 신주를 모시는 감실, 필통, 벼루함 등에서 죽절문이 나타나며 도자기의 표면을 죽절문양으로 만든것도 눈에 띈다. 또한 금속제로는 불사리구에서 총승포, 요령, 노리개에 달린 귀이개까지 다양한 것에서 죽절문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망건통, 궤상, 목침 등에서 등기의 간주 부분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양을 만날 수 있다. 등기에 죽절문이 많이 이용된 것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배경을 바탕으로한 선비정신과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연주문은 주로 기와나 동경, 나전칠기 등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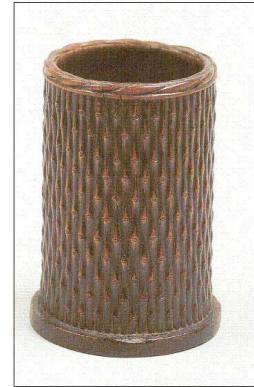
또한 의식용 촛대는 소재에 관계없이 간주에 죽절문과 연주문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일상생활용 촛대 중 목제의 경우 간주에 죽절문을 다양하게 넣어 강조를 하고 방풍선을 단순하게 만든 반면 금속제 촛대의 경우 간주 부분은 죽절 문양을 한번 정도 넣거나 문양 없이 단순하게 처리한 대신 방풍선을 파초형, 나비형, 원형, 박쥐형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고 방풍선과 이음새 부분에 길상어문을 새겨 기복신앙을 나타냈다. 또한 은입사 기법을 사용하여 섬세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어 상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렇게 방풍선에 사용된 문양과 길상어문은 목가구의 장식 부분에 많이 나타나며, 수복강령(壽福康寧), 부귀다남(富貴多男)과 같은 길상어문은 떡살이나 다식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삽도 9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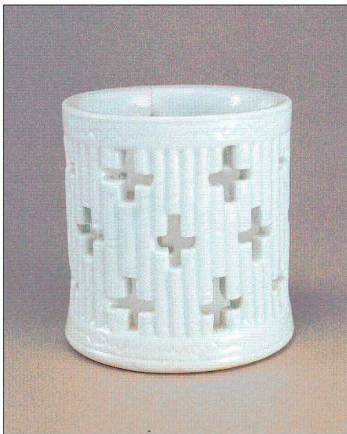
(삽도97) 책장 다리



(삽도98) 통영반



(삽도99) 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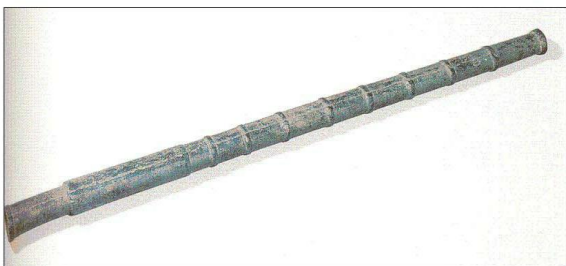
(삽도100) 백자 필통



(삽도101) 불사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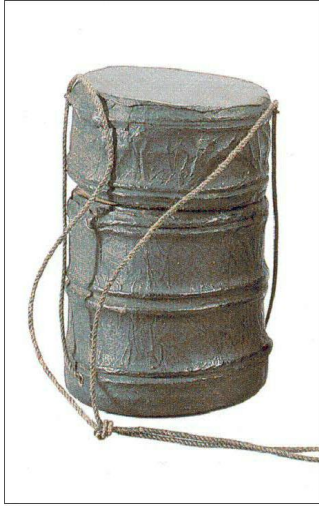
(삽도102) 요령



(삽도103) 충승포



(삽도104) 귀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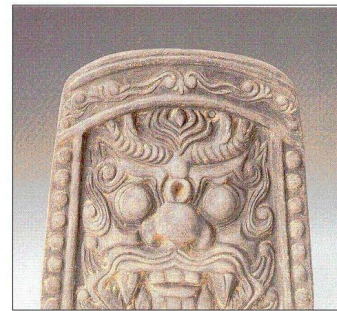
(삽도105)망건통



(삽도106)일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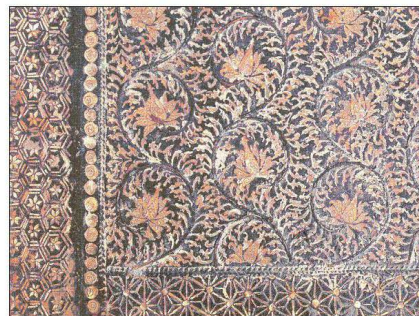
(삽도107)괘상



(삽도108)귀면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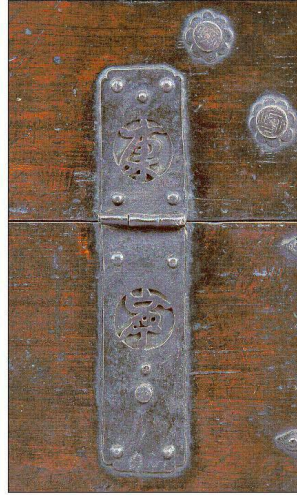
(삽도109)동경



(삽도110)나전철기함



(삽도111)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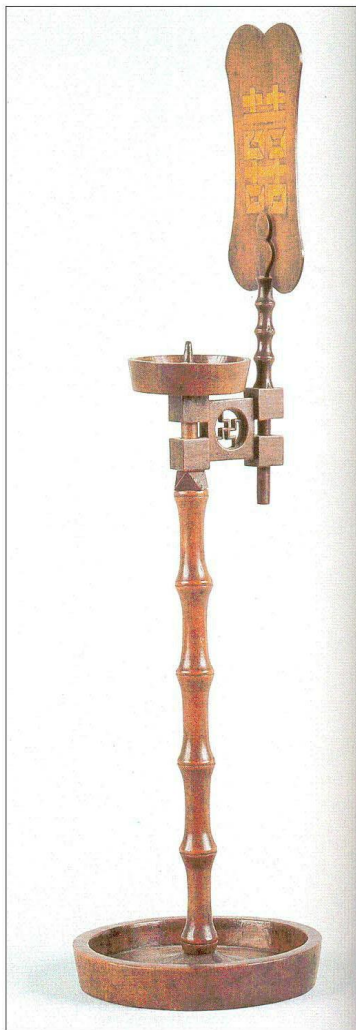


(삽도112)반달이 장석



(삽도113)다식판

목제 촛대의 죽절문양과 통영반의 죽절문양이 매우 흡사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삽도114-116)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중 이와 같은 죽절문양은 통영반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컨대 이러한 형태의 문양이 특별히 통영 지방에서 유행하여 소반 이외에 촛대에도 사용하였거나 여기에 더하여 솜씨 좋은 장인이나 공방에서 소반과 촛대 모두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등기의 출처가 불명확한 현재 이러한 개연성은 희박하다.



(삽도114) 목제 촛대



(삽도115)통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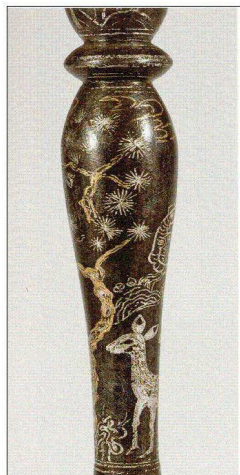


(삽도116)통영반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철제구리는입사촛대는 파초형의 방풍선에 시(詩)가 한 수 적혀 있고 밑받침대의 바깥 부분과 세 개의 다리에도 조각을 하였고 특히 간주 부분에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인 사슴, 소나무, 바위 등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은입사로 되어 그 형태나 문양에 있어 섬세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는 뛰어난 작품이다.(삽도117) 반면 파초형의 방풍선이 달린 유제 촛대는 방풍선에 다소 서툰 솜씨의 박쥐문양을 부착하여 복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촛대는 서민층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인 이상의 계급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삽도118)



(삽도117)철제구리는입사촛대



(삽도118) 유제 촛대

3. 등기에 나타난 비례관계

사물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황금분할(Gold Section)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조화 비율을 연구한 끝에 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1:1.618이라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가 가로와 세로의 합과 가로의 비가 같다는 것을 찾아냈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대리석의 장식과 수학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즉 신전 각 부분이 정확하게 기하학적인 비율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이후로 시각에 호소하는 도형이나 입체 등에서도 이 비례를 많이 이용해 왔다.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두변의 비가 황금분할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례의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정돈된 직사각형이기 때문이며,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조형예술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미감에 내재된 비례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즉 김정기는 선사인의 주거지에 나타나는 장방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1:1.4에 해당한다고 하는 금강비례론(金剛比例論)을 주장한다. 그는 신라 종의 종구와 종고의 비례인 1:1.3의 수치가 금강비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례로 거론하는 바, 이는 서양의 황금분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견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⁵³⁾ 즉 서양의 황금분할과 다른, 우리에게 쾌적감을 안겨주는 고유한 비례관계가 일찍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통의 목가구가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미감과 비례관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수치 없이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은 선조들의 직관적인 심미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 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등기의 경우

53) 김정기 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를 권영필 외, 『韓國美學試論』,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7, 91쪽에서 재인용

어떠한 비례를 지닌 공예품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 등기를 등경, 등가, 촛대 세 종류로 구분하여 밑지름과 높이의 평균과 비례를 산출한 바, 그 방법으로 집중화경향을 나타내주는 대표값에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본고에서는 산술평균과 극단치에서 올 있는 산술평균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빈값을 함께 구하였다. 표 1-3에서 보듯이 등경 20점, 등가 36점, 촛대 36점 총 92점을 표본으로 하였다.

그 결과 등경은 높이 평균이 60cm 정도이며 등잔의 높이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등잔걸대가 있는 관계로 등잔의 위치는 대부분 45-50cm에 위치한다. 등가의 경우 높이 평균이 44cm로 등경보다 키가 작지만 등가의 높이가 곧 등잔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불의 위치는 등경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촛대는 의식용 촛대와 일상생활용 촛대를 구분하였는데 의식용 촛대 중에서 촛대가 초의 형태를 지닌 것은 높이가 평균 60cm이고 의식용이면서 일상생활용으로도 쓰이는 북발형 밑받침에 죽절형의 간주를 지닌 기본적인 촛대는 평균높이가 46cm이다. 일상생활용 촛대 중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된 방풍선이 달린 촛대는 평균 87cm 정도이나 이는 방풍선이나 갖의 높이까지를 측정했으므로 이 높이를 제외하면 등경, 등가, 촛대의 경우 불의 위치는 40-50cm 정도로 규격화된 수치나 일정한 형식 없이 만들어진 등기지만 불의 위치가 좌식 생활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밑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등경은 밑지름:높이가 1:2.7, 등가는 1:2.2, 의식용 촛대는 1:3, 일상생활용 촛대는 1:4.35를 나타낸다. 의식용 촛대는 밑지름 평균이 15cm로 다른 등기보다 작는데 이는 예·의식에 사용시 상이나 단위에 올려놓았을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등경, 등가, 일상생활용 촛대의 밑지름은 20-22cm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서민층이 많이 사용한 목제 등잔대나 상류 계층이 이용한 촛대는 비교적 협소한 가옥 구조의 생활공간으로 인하여 수직적인 형태이면서 이동에 편리하게 규모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상류계층이 주로 사용하였던 촛대는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성이 강조되어 시각적으로 세련미를 더하였다.

또한 등기에 나타난 비례관계를 고찰해 본 결과, 우리 민족의 선사주거지나 종에서 발견되는 금강비례 즉 1:1.4의 비례관계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의 밑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등경이 1:2.7, 등가는 1:2.2, 의식용 촛대는 1:3, 일상생활용 촛대는 1:4.35의 비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등기의 비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표-1, 2, 3)

등경	단위(cm) 높이, 밑지름	밑지름:높이	밑받침대	간주	재료	기 타
1	53.5 23	1:2.326	타원형	고사리말림	목제	
2	61.5 21	1:2.928	원형	직선	“	
3	53 21	1:2.523	팔각형	“	“	
4	85 27	1:3.148	“	용조각	“	
5	61 18	1:3.388	사각형	직선	“	
6	50 15.3	1:3.267	자유형	“	“	
7	50 19.5	1:2.564	사각형	연주문, 즉절문	“	
8	53 19	1:2.798	팔각형	직선	“	
9	60 23	1:2.608	“	나뭇잎형 투각	“	
10	55 17	1:3.235	“	나비문	“	
11	57 20	1:2.850	사각형	두 개의 기둥	“	
12	50 16.6	1:3.012	사각, 팔각	직선	“	
13	69 36	1:1.916	거북형	“	“	
14	78 28	1:2.785	팔각형	상부조각, 기름받이	“	
15	58 16.5	1:3.515	“	“	“	
16	35 18	1:1.944	명형	고사리말림, 기름받이	유제	
17	43 17.5	1:2.457	“	“	“	
18	77.5 29.5	1:2.627	“	“ , 파초형방풍선	백동	촛대결용
19	78 28	1:2.785	원형	고사리말림, 기름받이	유제	
20	76 26.5	1:2.867	명형	“	“	

등가	크기(cm) 높이, 밑지름		밑지름:높이	밑받침대	간주	재료	기 타
21	40	19.8	1:2.020	팔각형	마름모문	목제	
22	50	23	1:2.173	“	마름모문, 연주문	“	
23	43.5	19	1:2.289	“	죽절문	“	
24	42	17	1:2.470	“	빗살문	“	
25	40.5	19	1:2.131	원형	죽절문, 연주문	“	
26	40	22.5	1:1.777	팔각형	빗살문	“	서랍
27	29	18.5	1:1.567	“	마름모문, 죽절문	“	
28	43	22.3	1:1.928	“	장고문	“	
29	45	21.5	1:2.093	“	장고문	“	
30	45	21	1:2.142	“	마름모문	“	
31	38			“	죽절문	“	
32	45	17	1:2.647	“	마름모문	“	
33	47	15.5	1:3.032	원형	-	“	
34	42	23.6	1:1.779	사각형	죽절문	“	
35	49	18	1:2.722	팔각형	죽절문, 연주문	“	
36	42	16.8	1:2.500	“	죽절문	“	
37	52.5	24	1:2.187	원형	나선형	“	
38	40	15	1:2.666	복발형	죽절문	“	촛대겸용
39	41	17	1:2.411	원형	-	“	
40	36	19.5	1:1.846	“	원형기둥	“	
41	42	20.5	1:2.048	“ , 다리	죽절문	“	
42	38	23.5	1:1.617	팔각형	원형기둥	“	
43	54.5			“	사각기둥	“	
44	43.5	19	1:2.289	원형	죽절문	“	
45	44			팔각형	죽절문	“	
46	39	20.5	1:1.902	“	연주문	“	
47	45	17	1:2.647	화엽형	연주문	“	
48	43	18	1:2.388	자유형	원형기둥	“	
49	41	19	1:2.157	사각형	원형기둥	“	서랍
50	43	18	1:2.388	자유형	원형기둥	“	
51	45	23.5	1:1.914	타원형	대가지기둥	“	
52	40	23	1:1.739	원형	죽절문	철제	
53	52	22.5	1:2.311	“	죽절문	“	
54	40	22.8	1:1.754	“	죽절문	“	
55	66			“	연주문	“	
56	43	18	1:2.388	사각형	연주문, 마름모문	“	

촉대	크기 (cm) 높이 밑지름	밑지름; 높이	밑받침대	간주, 방풍선	재료	기 타
69	55		-	화문	목제	
70	84.3		-	화문, 용문	“	
71	41.7 14.2	1:2.936	복련, 화엽	화문	“	
72	60 12.5	1:4.800	복발형	연주문	“	
73	87 28	1:3.107	팔각형	죽절문	“	
74	40 12.5	1:3.200	복발형	연주문	“	
75	51 14.5	1:3.517	“	“	황동	
76	50 17.3	1:4.913	“	“	백동	
77	26 4.8	1:5.416	“	죽절문	유제	
78	29.5 9	1:3.277	“	“	백자	
79	14.5 14	1:1.035	수반형	-	“	
80	46 21.5	1:2.139	복발형	연주문	옥돌	
81	46.5 17	1:2.735	화엽형	나선형	목제	
82	67.5 25.5	1:2.647	화엽형	죽절문	“	富貴多男
83	36 18	1:2.000	팔각형	죽절문	“	
84	25.5 14	1:1.821	거북형	-	동제	화엽형초꽃이
85	66.5 18.5	1:3.594	화엽형	파배기, 화엽형	목제	개구리 조각
86	66 20.5	1:3.219	원형	죽절문, 파초형 “	“	
87	73.5 22	1:3.340	“	연주문, “	“	
88	71 22	1:3.227	“	죽절문, “	철제	근자문
89	72 22	1:3.272	“, 다리	죽절문, “	“	
90	69.5 20	1:3.475	육각형	육각기둥, 육각형	“	은입사, 囍자문
91	45.5 15	1:3.033	복발형	원기둥	“	“, 단풍문
92	42 15	1:2.800	거북형	학형	동제	,
93	69 20	1:3.450	명형	죽절문, 파초형	유제	불집계, 박취문
94	74 21.5	1:3.441	“	죽절문, “	“	박취문
95	79 23	1:3.434	원형	원형기둥, “	“	박취문
96	91 25	1:3.640	“	죽절문, 원형	백동	박취문, 고깔
97	47 16.5	1:2.848	“	원형기둥, “	유제	꽃무늬
98	66 17	1:3.880	“	죽절문, “	“	囍자문
99	81 20	1:4.050	“	원기둥, 화엽형	“	
100	96 26	1:3.692	화엽형	죽절문, 화엽형	“	갓, 불집계
101	79 19	1:4.157	“	죽절문, 원형	“	囍자문
102	40 12	1:3.333	“	죽절문, 나비형	“	
103	45 15	1:3.000	“	원기둥, “	“	불집계
104	69 22	1:3.136	“	죽절문, “	“	囍자문

V. 결론

우리 조상의 생활용구였던 전통 등기는 석유와 같은 광물성 기름이 생산되지 않았던 관계로 불을 켜는 연소물로는 기름과 초가 주종을 이루었다. 주위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동·식물의 기름을 이용한 유등양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용되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초의 사용은 통일신라기의 촛대와 안압지에서 출토된 초 가위로 신라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극히 소수의 계층에서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초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진 고려시대 말기부터 초는 왕실과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의식용 등기에 일부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의 개발과 생산량이 증가된 조선 후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전기가 유입된 이후까지 벽지에서 사용하던 등기인 등잔대나 촛대의 기본적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등기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연소물인 기름이나 초의 개발을 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로 볼수 있다. 이러한 것은 문헌자료에도 연소물에 관한 기록은 보이나 등기의 구조에 관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별로 등기의 외부 의장에 따른 종류와 양식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등기에도 종교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며 귀족적이면서 화려한 불교적 사상을 담은 연화형(蓮花形)을 소재로 한 등기가 제작되었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왕공귀족과 고위 승려들에 의한 귀족적 문화가 발전하면서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적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제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청동촛대의

복발형(覆鉢形)의 받침대는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던 고배각의 영향으로 이의 변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만들어진 광명대에 사용된 죽절형의 간주는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용되었으며 광명대의 형태는 조선시대 좌등의 원형이 되었다.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이며 화려한 불교문화를 배척하면서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소박하고 자연주의적 성향을 띤 실용적인 등기가 제작되었다. 또한 영·정조 이후 시장경제의 발달로 국력이 신장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서민층까지 널리 등기의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등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등잔대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던 고배각의 형태보다는 평평한 밑받침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이는 원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화엽형, 거북형 등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밑 받침대에 서랍을 만들어 실용성을 강조한 것과 여러 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간주는 죽절형, 연주형, 장고형, 고북형 등과 이들의 변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목제등가에서 간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목제는 금속제와 달리 제작이 용이하므로 필요에 따라 주어진 재료로 다양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등잔대의 재료로는 목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유제, 철제, 황동, 백동 등의 금속과 돌, 토기, 도자기, 옥석, 옹기, 노예계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촛대의 경우 의식용과 일상생활용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풍속도에 나타나듯이 예·의식에 사용된 촛대는 고려시대 광명대에서 그 형태를 본받은 것으로 복발형의 밑받침대에 연주형, 죽절형 또는 그의 변형의 간주로 이루어졌다. 일상생활용 촛대 가운데 의식용 촛대처럼 단순한 형태부터 십장생인 거북과 학 등을 소재로 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또 다른 형태로 촛대에 방풍선이 달린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목제보

다는 금속제가 많은 것이 등잔대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촛대는 주로 상류 계층에서 사용 되었는데 촛대에 방풍선을 설치하고 방풍선과 이음새 부분에 장식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방풍선은 주로 원형, 육각형, 파초형, 나비형, 화엽형이 이용되었으며 이음새 부분에는 만(卍), 수(壽), 희(囍) 등의 길상어문을 투각하여 거북, 학 등과 함께 부귀수복과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길상 사상을 나타냈다.

등기는 상류층과 서민층이 사용한 것에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는데 기본적인 등기의 형태나 구조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상류계층이 사용한 등기는 금속제가 많고 규모는 조금 더 큰 경향이 있으며 문양을 세심히 조각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반면 서민층이 사용한 등기는 손수 만드는 과정에서 목재의 특성을 살린 소박하면서도 창조적인 형태의 등기가 주로 제작되었다. 또한 등기의 비례관계를 고찰한 결과 서양의 황금분할이나 우리 민족 고유의 금강비례인 1:1.4의 비례관계가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등기의 밑지름:높이가 등경은 1:2.7, 등가는 1:2.2, 의식용 촛대는 1:3, 일상생활용 촛대는 1:4.35로 앞으로 다른 민속 공예품과의 비례관계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등기는 단지 이전 시기까지 생활용구로서의 역할만이 부각되었던 측면이 다분히 존재하는 공예의 한 종류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고에서 검토해 본 것과 같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묻어 나는 민초들의 향수 뿐 아니라, 종교적, 계층간의 상이함까지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등기의 세분화된 분류 구분과 아울러 등기 이외의 다른 공예 부분에도 아직 연구되어야 할 장르가 많으리라 본다. 특히나 미술사 연구에서 공예는 회화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선행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 공예사가 더욱 풍부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사전 및 자료집

- ˆ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사대계 III권』, 동아출판사, 1978
- ˆ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국역 가례도감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ˆ 김기동·전태준 편자, 『춘향전·월왕전·왕장군전』, 서문당, 1984
- ˆ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上』, 을유문화사, 2004
- ˆ 김태준 역주, 『흥부전/변강쇠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 ˆ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臺灣商務印書館印行, 1933
- ˆ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영조실록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 ˆ 이강자 외 13인 공역자, 『국역 增補山林經濟』, 신광출판사, 2003
- ˆ 이병기·이희승·이승녕·구자균 편집, 『農家月令歌/漢陽歌』, 민중서관, 1974
- ˆ 일연, 김원중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2003
- ˆ 민족문화추진회 편, 『산림경제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ˆ _____ 편, 『오주연문장전산고 X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 ˆ 한국민속사전 편집위원회, 『韓國民俗大事典』, 민족문화사, 1991
- 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단행본

- ˆ 권영필,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문예출판사, 2002
- ˆ 권영필 외, 『韓國美學試論』,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 ˆ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2003
- ˆ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ˆ 김원용·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 ˆ 瀧澤 寬, 『燈火器 百種百話』, 矢來書院, 1976
- ˆ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상』, 열화당, 2001
- ˆ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하』, 열화당, 2001
- ˆ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 ˆ 한국전력주식회사 편, 『韓國의 古燈器』, 한국전력주식회사, 1968
- ˆ 허 균, 『전통 문양』, 대원사, 2002

정기간행물

- ˆ 강순형, 「수정박이 금동초꽃이 살핌」, 『文化財』(제28호), 문화재관리국, 1995, 211-225쪽
- ˆ 권향아, 「韓國 古代의 金屬材料」, 『한국공예논총』(제2집1권), 한국공예학회, 1999, 69-86쪽
- ˆ 김삼대자, 「전통미의 계승 : 燈」, 『디자인』(4권1), 1973, 24-33쪽
- ˆ 신민,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한국공예논총』(제4집2권), 한국공예학회, 2001, 65-91쪽
- ˆ 李宗碩, 「韓國燈器의 變遷」, 『공간』, 1971, 11·12, 43-45쪽
- ˆ 최인철·김은경, 「공예의 본질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제2집2권), 한국공예학회, 1999, 197-219쪽

학위논문

- ˆ 구방희, 「朝鮮朝 燈器에 關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0
- ˆ 김삼대자, 「李朝時代 燈燭器具에 關한 考察」,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68
- ˆ 김영호, 「朝鮮朝 金屬燭臺에 關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7
- ˆ 박미경, 「朝鮮朝 燈器의 造形性에 關한 研究」,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ˆ 백인자, 「李朝時代 燈器에 關한 研究」,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79
- ˆ 서동욱, 「金屬製 燈 開發에 關한 研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ˆ 신철승, 「조선조 등기 형태를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 ˆ 이규향, 「李朝後期 木燈器의 造形性에 關한 考察」,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 ˆ 이태숙, 「朝鮮朝 燈器具에 關한 研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ˆ 정승은, 「우리나라 전통 등기구(燈器具)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 ˆ 황만영, 「李朝 庶民의 美意識에 關한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74

도록 및 화집

- ˆ 『국립공주박물관-무령왕능-』, 국립공주박물관, 1998
- ˆ 『등잔』, 한국등잔박물관, 1999
- ˆ 『博物館圖錄』, 원광대학교박물관, 1996
- ˆ 『신구대학박물관』, 신구대학박물관, 2000
- ˆ 『入絲工藝』, 국립중앙박물관, 1997
- ˆ 『조선목가구대전』, 호암미술관, 2002

『韓國燈火具』, 국립민속박물관, 1986

『漢陽大學校 博物館 遺物選』, 한양대학교, 1995

安輝濬, 『韓國의 美 19. 風俗畫』, 중앙일보사, 1981

李宗碩, 『韓國의 美 24. 木漆工藝』, 중앙일보사, 1981

鄭良謀, 『韓國의 美 21. 檀園 金弘道』, 중앙일보사, 1981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8. 金屬工藝』, 동화출판사, 1974

崔淳雨·鄭良謀, 『韓國美術全集 13. 木漆工藝』, 동화출판사, 1974

韓炳三, 『韓國의 美 5. 土器』, 중앙일보사, 1981

도판목록

- 삽도1) 금동축협,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삽도2) 토제등잔, 신라, 한국등잔박물관
삽도3) 백자등잔, 조선, _____
삽도4) 백자등잔,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삽도5) 호형등잔, 조선, 한국등잔박물관
삽도6) 탕기형등잔, 조선
삽도7) 목제등경, 조선, 80cm x 21.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8) 목제등가, 조선, 42cm x 16.8cm, _____
삽도9) 철제주등, 조선,
삽도10) 황동쌍촛대, 조선, 51cm x 14.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11) 유제촛대,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삽도12) 다목적철제촛대, 조선, 27.5cm x 26.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13) 수초, 조선, 13.5cm x 26.5cm, 국립민속박물관
삽도14) 화초, 22cm x 4.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15) 밀초, 42.5cm x 12cm, 국립민속박물관
삽도16) 밀초, _____
삽도17) 좌등, 조선, 89.6cm x 29.9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18) _____, 조선, 129.5cm x 41.8cm, _____
삽도19) _____, 조선, 106.4cm x 28.9cm, _____
삽도20) _____, 조선, 80cm x 33.5cm, 온양민속박물관
삽도21) _____, 조선, 65cm x 32cm, _____
삽도22) _____, 조선, 60.7cm x 23.9cm, 경기도박물관
삽도23) 제등 손잡이, 조선, 경기도박물관
삽도24) 제등,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삽도25) _____, 조선, _____
삽도26) _____, 조선, _____
삽도27) 지초롱, 조선, 57.5cm x 27.5cm, 국립민속박물관
삽도28) 청사초롱,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삽도29) _____, _____, _____
삽도30) 신윤복, <月下情人>, 지본담채, 28.2x35.2cm, 간송미술관
삽도31) 김홍도, <慕堂平生圖 제2면 婚禮式>, 지본담채, 122.7x47.9cm, 국립중앙

박물관

- 삽도32) 조족등, 조선, 41cm x 12.5cm, 원광대학박물관
삽도33) _____, _____, 40(33, 40)cm x 18(14, 18.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34) 고구려 쌍영총 현실 행렬도
삽도35) 청동촛대, 중국 한(漢)대
삽도36) 백자등잔, 백제, 4.6cm x 8.9cm, 국립공주박물관
삽도37) 무녕왕릉 내부 부분도
삽도38) 쌍등청동촛대, 중국 한대
삽도39) 토기등잔, 신라, 16.4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40) _____, 신라, 14.5cm, 국립경주박물관
삽도41) _____, 중국 한대
삽도42) 차륜형토기, 가야, 16.7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43) 선형토기, 신라, 10cm, 12.6cm, _____
삽도44) 서수형토기, 신라, 14cm, 국립경주박물관
삽도45) 압형토기, 가야, 상: 19.8cm, 20.8cm, 호암미술관
_____, 하: 16.5cm, 15.7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46) 한향촉정도, 중국 한대
삽도47) 도제등잔, 일본 에도시대
삽도48) 금동수정장식촛대, 통일신라, 36.8cm x 21.5cm,
국보174호, 호암미술관
삽도49) 청동쌍사자촛대, 고려, 31.6cm x 14cm, 경희대박물관
삽도50) 청동촛대, 고려, 34cm x 12.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51) 청자촛대, 고려, 11cm x 12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52) 철제등가, 조선, 52cm x 22.5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53) 철제촛대, 조선, 72cm x 22cm, _____
삽도54) 목제등경, 조선, 50cm x 15.3cm, _____
삽도55) 목제등경, 조선, 53cm x 21cm, _____
삽도56) 유제등경, 조선, 43cm x 17.5cm, _____
삽도57) 백동등경겸용촛대, 조선, 77.5cm x 29.5cm, 이화여대박물관
삽도58) 목제등가, 조선, 40.5cm x 19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59) 목제등가, 조선, 43cm x 22.3cm, _____
삽도60) 목제등가, 조선, 40cm x 22.5cm, _____
삽도61) 목제등가, 조선, 42cm x 20.5cm, _____
삽도62) 목제등가, 조선, 45cm x 17cm, _____

- 삽도63) 목제등가, 조선, 42cm x 23.6cm, _____
- 삽도64) 목제등가, 조선, 52.5cm x 24cm, _____
- 삽도65) 목제등가, 조선, 45cm x 23.5cm, _____
- 삽도66) 철제등가, 조선, 66cm, 원광대박물관
- 삽도67) 구춧대, 중국 한대
- 삽도68) 철제주등, 조선, 21.5cm x 10cm, 한국등잔박물관
- 삽도69) 목제주등, 조선, 37cm x 18.7cm, 국립민속박물관
- 삽도70) 석제주등, 조선, 21.2cm x 8.8cm, 경기도박물관
- 삽도71) 백자소형등잔대, 조선, 20-25cm, 한국등잔박물관
- 삽도72) _____, _____, 22cm x 12cm, _____
- 삽도73) 백자등잔, 조선, 13.2cm x 9.6cm, 국립민속박물관
- 삽도74) 백자등잔, 조선, 35.2cm x 19.3cm, _____
- 삽도75) 작자미상, <進宴班次圖(水源陵幸8曲屏중)>의 부분, 149.8x64.5cm, 창덕궁
- 삽도76) 김홍도, <慕堂平生圖 제8면 回婚式>의 부분, 지본담채. 122.7x47.9cm
국립중앙박물관
- 삽도77) 목제화문춧대, 55cm, 국립중앙박물관
- 삽도78) 와룡춧대, 84.3cm, 창덕궁
- 삽도79) 목제연화문춧대, 41.7cm x 14.2cm, 국립민속박물관
- 삽도80) 목제춧대, 40cm x 12.5cm, 한국등잔박물관
- 삽도81) 황동춧대, 51cm x 14.5cm, _____
- 삽도82) 옥돌쌍춧대, 46cm, x 21.5cm, _____
- 삽도83) 백자춧대, 29.5cm x 9cm, _____
- 삽도84) _____, 14.5cm x 14cm, 국립민속박물관
- 삽도85) 목제춧대겸등가, 67.5cm x 25.5cm, 한국등잔박물관
- 삽도86) 동제귀부춧대, 25.5cm x 14cm, 국립민속박물관
- 삽도87) 목제춧대, 66.5cm x 18.5cm, 한양대박물관
- 삽도88) 파초형광배유제춧대, 69cm x 20cm, _____
- 삽도89) 원형광배백동춧대, 91cm x 25cm, 경기도박물관
- 삽도90) 나비광배유제춧대, 69cm x 22cm, 신구대박물관
- 삽도91) 은입사무쇠춧대, 69.5cm x 20cm, 한국등잔박물관
- 삽도92) 정선, <讀書餘暇>, 견본담채, 24.1x17cm, 간송미술관
- 삽도93) 김양기, <투전도>, 19C 중엽
- 삽도94) 작자미상, <호피장막도>, 전8폭 중, 18C 후반

- 삽도95) 목제등경, 53.5cm x 23cm, 한국등잔박물관
 삽도96) _____, 85cm x 27cm, _____
 삽도97) 책장, 부분, 조선
 삽도98) 통영반, _____
 삽도99) 필통, _____
 삽도100) 백자필통, _____
 삽도101) 불사리구, _____
 삽도102) 요령, _____
 삽도103) 충승포, _____
 삽도104) 노리개, 귀이개, _____
 삽도105) 망건통, _____
 삽도106) 일주반, _____
 삽도107) 궤상, _____.
 삽도108) 귀면기와, _____
 삽도109) 동경, _____
 삽도110) 나전칠기 자개함, _____
 삽도111) 반단이 장식, _____
 삽도112) 반단이 장식, _____
 삽도113) 다식판, _____
 삽도114) 목제촛대, _____
 삽도115) 통영반, _____
 삽도116) 통영반, _____
 삽도117) 철제구리은입사촛대, _____, 80.5cm, 국립중앙박물관
 삽도118) 유제촛대, _____, 74cm x 21.5cm, 한국등잔박물관

- 그림1) 목제등경, 53.5cm x 23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2) _____, 61.5cm x 21cm, 한양대박물관
 그림3) _____, 53cm x 21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4) _____, 85cm x 27cm, _____
 그림5) _____, 61cm x 18cm, 신구대학박물관
 그림6) _____, 50cm x 15.3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7) _____, 50cm x 19.5cm, _____
 그림8) _____, 53cm x 19cm, _____
 그림9) _____, 60cm x 23cm, _____

- 그림10) _____, 55cm x 17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1) _____, 57cm x 20cm, _____
 그림12) _____, 50cm x 16.6cm, _____
 그림13) _____, 69cm x 36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14) _____, 78cm x 28cm, 온양민속박물관
 그림15) _____, 58cm x 16.5cm, _____
 그림16) 유제등경, 35cm x 18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7) _____, 43cm x 17.5cm, _____
 그림18) 백동제촛대 겸용 등경, 77.5cm x 29.5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19) 유제등경, 78cm x 28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20) _____, 76cm x 26.5cm, _____
 그림21) 목제등가, 40cm x 19.8cm, _____
 그림22) _____, 50cm x 23cm, _____
 그림23) _____, 43.5cm x 19cm, _____
 그림24) 목제등가, 42cm x 17cm, _____
 그림25) _____, 40.5cm x 19cm, _____
 그림26) _____, 40cm x 22.5cm, _____
 그림27) _____, 29cm x 18.5cm, _____
 그림28) _____, 43cm x 22.3cm, _____
 그림29) _____, 45cm x 21.5cm, _____
 그림30) _____, 45cm x 21cm, _____
 그림31) _____, 38cm, 온양민속박물관
 그림32) _____, 45cm x 17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33) _____, 47cm x 15.5cm, _____
 그림34) _____, 42cm x 23.6cm, _____
 그림35) _____, 49cm x 18cm, 온양민속박물관
 그림36) _____, 42cm x 16.8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37) _____, 52.5cm x 24cm, _____
 그림38) _____, 40cm x 15cm, _____
 그림39) _____, 41cm x 17cm, _____
 그림40) _____, 36cm x 19.5cm, _____
 그림41) _____, 42cm x 20.5cm, _____
 그림42) _____, 38cm x 23.5cm, 한양대학박물관
 그림43) _____, 54.5cm, 이화여대박물관

- 그림44) _____, 43.5cm x 19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45) _____, 44cm, 원광대학박물관
그림46) _____, 39cm x 20.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47) _____, 45cm x 17cm, _____
그림48) _____, 43cm x 18cm, _____
그림49) 목제등가, 41cm x 19cm, _____
그림50) _____, 43cm x 18cm, _____
그림51) _____, 45cm x 23.5cm, _____
그림52) 철제등가, 40cm x 23cm, _____
그림53) _____, 52cm x 22.5, _____
그림54) _____, 40cm x 22.8cm, _____
그림55) _____, 66cm, 원광대박물관 소장
그림56) _____, 43cm x 18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57) 철제주등, 21.5cm x 10cm, _____
그림58) 유제주등, 22cm x 10cm, 온양민속박물관
그림59) 목제주등, 37cm x 18.7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60) _____, 31.5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61) 석제주등, 21.2cm x 8.8cm, 경기도박물관
그림62) 백자주등, 16.9cm x 11.5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63) 백자소형등잔대, 20-2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64) _____, 22cm x 12cm, _____
그림65) _____, 13.2cm x 9.6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66) _____, 13cm x 9.6cm, _____
그림67) _____, 36cm x 20cm, _____
그림68) _____, 35.2cm x 19.3cm, _____
그림69) 목제화문촛대, 5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70) 와룡촛대, 84.3cm, 창덕궁
그림71) 목제연화문촛대, 41.7cm x 14.2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72) 목제촛대, 60cm x 12.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73) _____, 87cm x 28cm, _____
그림74) 목제촛대, 40cm x 12.5cm, _____
그림75) 황동촛대, 51cm x 14.5cm, _____
그림76) 백동촛대, 50cm, x 17.3cm, 종묘
그림77) 놋촛대, 26cm x 4.8cm, 창덕궁

- 그림78) 백자촛대, 29.5cm x 9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79) _____, 14.5cm x 14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80) 옥돌쌍촛대, 46cm, x 21.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81) 목제촛대, 46.5cm x 17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82) 목제촛대겸등가, 67.5cm x 25.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83) 목제촛대, 36cm x 18cm, _____
 그림84) 동제귀부촛대, 25.5cm x 14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85) 목제촛대, 66.5cm x 18.5cm, 한양대박물관
 그림86) _____, 66cm x 20.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87) _____, 73.5cm x 22cm, _____
 그림88) 철제촛대, 71cm x 22cm, _____
 그림89) _____, 72cm x 22cm, _____
 그림90) 은입사무쇠촛대, 69.5cm x 20cm, _____
 그림91) 은입사철제촛대, 45.5cm x 15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92) 귀학형동촛대, 42cm x 1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93) 파초형광배유제촛대, 69cm x 20cm, _____
 그림94) _____, 74cm x 21.5cm, _____
 그림95) _____, 79cm x 23cm, 신구대학박물관
 그림96) 원형광배백동촛대, 91cm x 25cm, 경기도박물관
 그림97) 원형광배유제촛대, 47cm x 16.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98) _____, 66cm x 17cm, _____
 그림99) 원형광배유제촛대, 81cm x 20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00) _____, 96cm x 26cm, 신구대박물관
 그림101) _____, 79cm x 19cm, _____
 그림102) 나비광배유제촛대, 40cm x 12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103) _____, 45cm x 15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04) _____, 69cm x 22cm, 신구대박물관
 그림105) _____, 68.5cm x 21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06) 등축겸용유제촛대, 53cm x 19.5cm, _____
 그림107) 토제등촛대, 38cm x 15.5cm, 창덕궁
 그림108) 옹기등잔, 47cm x 13cm, 한국등잔박물관
 그림109) 노취계등, 3.3cm x 15.6cm, 국립민속박물관

원문누락

Abstract

A Study of Lighting Fixtures of Chosun -Deungjan-dae(Lamp stand) and Cho-dae(Candle holder)-

Soo Kyung Kim
Dep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Our traditional lighting fixtures got along with our ancestors for a long while as an important daily necessity and living artifacts to illuminate the night until the electricity was introduced to us in 1876. However it was not accepted as an artistic craft, but just considered as an ancestral craft and daily necessity, and it was disregarded in the Korean art history. In this article, we will study our traditional lighting fixture with wish to learn the custom and culture of our forefathers' life as well as their feelings in life and sense of beauty.

In the beginning of lighting fixture it starts with bonfire and

it is advanced to portable torch, Deungjan and Candle. Deungjan, using oil, was the most popular since it's easy to get oil from seeds or animals, while candle was made of beeswax which is very rare and hard to obtain. So candle is used only for the important ceremony in the high society and royal family, but in the late of Chosun, it spreaded to the class of the general public as per the ris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eanwhile, Buddhism was so flourished in the era of the Three States and Unified Shilla, and the Buddhist art and aristocratism of shilla influenced the design of lighting fixture to meet the religious demands. And furthermore, Chinese(Dang) culture also influenced our lighting fixture to be elaborate and gorgeous and as a result of that we can find some luxurious lighting fixture like Cho-dae(candle holder) with a design of lotus flower.

The lighting fixture in Koryo is characterized as aristocratic because is has been influenced by Buddhism, and Jedeng(hanging lantern) and Cho-dae(candle holder) was developed to meet the Buddhist ceremony like Yon-Dung-Hoe and Pal-Kwan-Hoe.

Since the turn of the Chosun, with the policy of excluding Buddhism and respecting Confucianism, the simple and practical Chorong(portable lantern) was developed. The lighting fixture of Chosun can be classified into Deungjan-dae(lamp stand), Cho-dae(candle holder), Jowa-deung(floor lamp) and Je-deung(portable lantern) by their design and function. A Je-deung(protable lantern) breaks down into Deung-rong(using deungjan) and Chorong(using

candle).

In this article, the study is confirmed to Deungjan-dae and Cho-dae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and we will break them down according to the shape material and design to find if there is any relation with religious background.

부록

등기는 민간 생활용구로서 문헌적 사료가 남아 있는 것이 극히 희소한데 다음은 조선 21대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가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와 혼인(영조35, 1759)하는 의식을 기록한 가례도감의 궤(嘉禮都監儀軌)에 기록된 사항 중 등기에 관련된 것만 옮겨 보았다.¹⁾

친영(親迎)²⁾

금홍초(金紅燭) 1쌍 - 심지가 홍색인 초를 갖추어(心紅燭具)

동뢰(同牢)³⁾

금홍초(金紅燭) 2쌍 - 심홍초(心紅燭) 심지가 홍색인 초를 갖추어

홍사초(紅四燭) 5쌍

홍육초(紅六燭) 40자루(柄)

홍팔초(紅八燭) 40자루-육축, 팔축은 상례로 나주(羅珠)⁴⁾라 일컫는다.

동뢰연 기명(同牢宴器皿)

철초롱(鐵燭籠) 10부(部) - 홍사롱(紅絲籠) 갖추어

별궁 기명(別宮器皿)

주석촛대(鑄燭臺) 1쌍

주석전촉기(鑄剪燭器) 두경 갖추어 1좌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국역 가례도감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2) 六禮의 하나.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

3)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交拜禮)를 마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것

4) 나조(羅照)인 듯. 나조는 새나 갈대를 한자쯤 잘라 묶고 붉은 종지로 감아 초처럼 불을 켜는 물건. 혼례의 납채 때에 신부 집에서 쓴다.

놋쇠제등잔(鑪提燈) 갖추어 1좌

주등경(鑄燈檠) 잔 갖추어 1좌

품목질(稟木秩)⁵⁾ 기묘년(영조35, 1759) 5월

감조관(監造官) 숙직시 매일

등유(燈油) 3석(夕)⁶⁾, 용지(龍脂)⁷⁾2자루 [柄] -당직하는 날만 진새(進排) 하며, 등잔(燈盞)에 소용되는 종지 [鍾子] 1개, 목광명대(木光明臺) 하나를 빌려 쓰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진배하며,

각 차비 의녀질(各差備醫女秩)

친영 때-촛불 [燭] 차비 2인

동리연 때-집촉(執燭) 차비 2인, 촛대 [燭臺] 차비 4인

별궁에 진배하는 기명의 무게 및 들어가는 것

주물 촛대 [鑄燭臺] 1쌍-무게 10근 9냥

주물 초그릇 [鑄燭器] 뚜껑 1좌-무게 2근 8냥

등경 [鑄燈檠] 잔(盞) 갖추어 1좌-무게 9근 10냥

유제등(鑪提燈) 1좌에 들어가는 것 -

출초(出草:글의 초를 잡음)에 소용 되는 단판(楸板)-반 닢(立)-기둥과 네 문짝의 우리(于里), 경첩의 원환(圓環) 배목(排目)을 갖추어, 촛불 꽃이 [燭高之] 4면 소란(小欄)에 소용되는 도합하여 두석(豆錫)-10근-합-10근-함석(舍錫)-한근 4냥-개판(蓋板) 8편(片), 하대(下臺)·족대(足臺)·두정

5) 가례 때 도감에서 왕에게 여쭙은 글을 모아 적어 놓은 것

6) 용량 측정의 한 단위. 홉(斛)의 10분의 1, 작(勺)과 통용 됨

7) 숨이나 형겅을 나무에 감아 기름을 묻히어 초 대신 불을 켜는 물건.

(頭釘)에 소용되는 유철(鑪鐵)-30근-숙동(熟銅)-10근-화유납(和鑪鐵)-1근
4냥-바르는 데 [塗] 소용되는 죽청지(竹淸紙)-5장-범유(法油)-5합-백랍(白蠟)-02냥-밀가루 [眞末] -2합-문끈 [門纒] 에 소용되는 가는 구리 철 [細銅絲] -2척-백휴지(白休紙)-8냥-황밀(黃蜜)-10냥-송지(松脂)-10냥-왜주칠
괘경대(倭朱漆櫃鏡臺)-1부

주물촉대 [鑄燭臺] 의 출본(出本: 본뜬)에 소용되는 가래나무 [楸木] 길이
1척짜리 1조, 길이 2척짜리 1조 및 황밀(黃蜜) 5냥, 철사(鐵絲) 10척, 백
휴지(白休紙) 5냥, 소금 3합

별궁진배 기명조작질(別宮進排器皿造作秩)

철초롱(鐵燭籠) 10부. 매부(每部)-높이 3척, 너비 1척 1촌-에 들어가는 것
정철(正鐵)-8근 5냥-위아래의 마개 [上下 莫只] 및 판에 소용되는 단판
(楸板)-6촌 5푼-자루에 소용되는 가시목(加時木)-5척 4촌 5푼-칠하는 데
[着漆] 소용되는 아교-4전 5푼-주토(朱土)-1합-반주홍(礮朱紅)-1냥-명유
(明油)-6사 및 들어가는 것은 횡간(橫看)에 의한다.-철전(鐵箭)을 싸는데
소용되는 백휴지-3장 반-의갑(衣匣)에 소용되는 홍운문사(紅雲紋紗) 매척
(每隻)-2척 4촌 5푼-위·아래 깃 [上下衿] 에 소용되는 청운문사(靑雲紋
紗) 매금 [每衿] -반골(半骨) 2척 4촌 5푼-꿰메어 만드는데 [縫造] 소용
되는 홍주사(紅紬絲)-1전-청주사(靑紬絲)-1전

나무촛대 [木燭臺] 5쌍(雙)에 들어가는 것. 매작 [每集] 당.

기둥(柱)에 소용되는 피나무 [楸木] 작은 도리나무-반개-바탕 [所湯] 에
소용되는 단판(楸板)-5촌-접시(貼匙)에 소용되는 단판 반 골-3촌-칠에 소
용되는 반주홍(礮朱紅)-2전-명유(明油)-2사(夕)

광명대(光明臺) 27개에 들어가는 것. 매개(每箇)당
기둥에 소용되는 작은 도리나무 [小條里木] -반 개-바탕에 소용되는 송판
-1척-개고리(介古里)에 소용되는 박송판(薄松板) 반골-1척

대내(大內)에 들일 광명대 15부에 들어가는 것- 매부(每部)당
바탕에 소용되는 후판(厚板)-1척-기둥에 소용되는 작은 도리나무-반 개-개
고리에 소용되는 얇은 송판(薄松板) 반 골-1척-등잔걸이에 소용되는 3치
못-2개-칠에 소용되는 반주홍-5전-아교-2전-명유-3사. 횡간에 의한다.